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18 1983년 4월27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April 27, 1983

MAY 2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 당당한 포즈 ~

미스코리아 『진』

유 경 희 양(18)

◆23일밤 토론토 힐튼 하버캐슬 호텔에서 열린 미인선발대회 수영복심사에서 유경희양이 육체미에 자신 있는듯 경쾌하게 걸어 나오고 있다. 의상은 초록색 원피스 수영복.

산업생산지수 2개월째 상승

불경기여 안녕!

1월상승률은 5.7%로 사상최고

지난 1월의 캐나다 산업생산이 사상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2월에도 계속 증가를 보임으로서 「81년 중반부터 시작된 불경기가 지난해 4·4분기(10~12월)에 마침내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da)은 지난 2월의 제조업및 광업의 생산증가율을 1.8%로 추산발표했다.

1월에는 캐나다가 산업생산지표(Industrial Index)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월별 증가율인 5.7%를 기록했다.

1월의 생산증가는 미국으로 부터의 자동차주문 증가로 자동차회사들이 근로자들을 대개 복직시키고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서 자동차제조부문에서 무려 50%의 증가를 보인 때문이었다.

그러나 2월의 증가는 보다 포괄적이고 많은 분야의 산업의 생산증가 때문이었으며, 특히 불경기의 여파로 가장큰 타격을 받았던 제지·화학·의류·금속·발전시설 제조등의 분야의 생산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산업생산은 캐나다내에서 발생되는 재화(Goods)및 용역(Services)생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측정된다. 1971년도의 100을 기준으로 한 캐나다의 산업생산지표는 1월에는 122.4였으며 2월에는 이보다 증가한 124.5를 기록했다.

지난 1월과 2월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지표는 1년전에 비해 여전히 3.3%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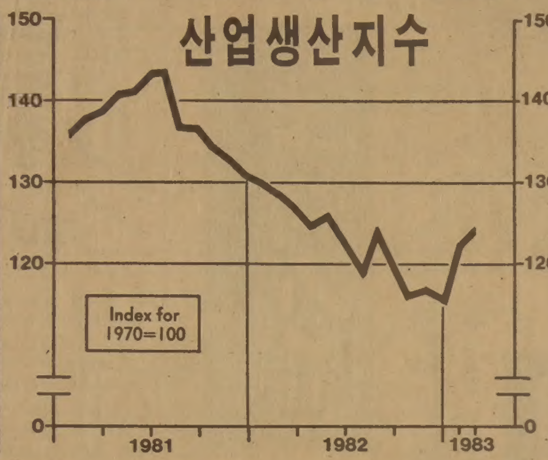
불경기가 시작된 이래 산업생산이 증가된 달은 금년도의 1월과 2월을 제외하곤 전년도의 5월과 11월이었다.

미국 컨퍼런스·보드(U.S. Conference Board)도 25일 세계의 주요경제지표를 발표했는데, 이중에는 캐나다의 급격한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지표도 포함되어있다.

캐나다통계국의 한 대변인은 지난 1월과 2월의 산업생산이 너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3월중에 3.5%정도 생산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금년 1.4분기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4.4분기보다 약 5%의 증가를 기록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지난 1.2월의 경제성장율은 캐나다경제가 3개월전에 바닥을 보인후 급속도로 불경기에서 벗어나 금년 상반기의 연간 GNP성장율은 5%이상이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상무성은 금년 1·4분기의 연간GNP 성장율이 3.1%로 계상된다고 발표했다.



◆위도표는 침체되었던 산업생산이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인회관기금 유용

워싱톤 전한인회장 강철은씨

(워싱턴지사)워싱턴지역 전임 한인회장이 3만여 달러의 한인회관 기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이곳 전 한인회 총무이사 황옥성씨에 따르면 81년2월26일 현재 워싱턴의 시큐리티 내셔널뱅크에 한인회관 기금으로 3만4천14달러56센트가 비축되어 있었으나, 그간 금년 1월10일까지 3차에 걸쳐 3만2천4백86달러56센트가 인출됐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강철은 전회장의 손에서 없어졌으며, 지난해 21대 한인회장 선거시에 받았던 공탁금 2만6천달러와 대사관에서 받은 노인 복지기금 7천달러도 행방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철은 전회장은 회관기금에 손을 댄 것은 잘못인줄 알지만 당시 한인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 돈을 썼으며, 신임 조한용회장에게 3만9천7백13달러24센트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한용회장은 "지난 3월25일 인수인계시 회관건축기금을 인수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곧 돈을 마련해준다는 강씨의 말을 믿고 공표했다. 잘못된 사실이 밝혀지면 추궁하겠다"고 18일 말했다.

북한, 미국에 배후접촉

소련에 불만표하고 남한 견제키위해

(뉴욕지사)북한은 미국의 외교관과 접촉하고 있으나, 소련이 북한과 미국의 접촉을 방해하고 있다고 동경에서 발행되는 재일교포 민단계 신문인 통일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북한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접촉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눈치챈 소련이 북한의 대미접촉을 방해하는 작전을 펴고 있다고 통일일보는 밝혔다.

소련은 북한을 포함한 몽고, 월맹, 캄보디아, 라오스등 친공국가들로 구성되는 바르샤바조약기구와 같은 방위기구인 「아시아안전조약기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미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김일성이 최근 무바락 이집트대통령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된바 있다.

통일일보는 또 동경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84년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평양과 접촉을 강화할 뜻을 지난 2월25일 일본에 전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미 접촉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떨어뜨리는 한편, 소련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견제 효과등 다목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특히 최근 한국과 소련이 접촉하고 있는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소련에 대해 지난해 3억5천만달러, 금년에 5억달러의 경제원조를 요청했으나, 소련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 신문은 소련이 북한에 대해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군인을 소련에 파견, 소련의 현대적 무기및 전술훈련을 받게 할 것이며, ▲북한에 소련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북한은 소련의 전략에 일치하는 무기체제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6.10원
CN$1.00 = US81.56센트
금(런던) = $541.32
은(토론토) = $15.09/oz.

보수당 당수후보 의사표명

다재다능한 세·킨 여사

연방보수당 당수도전에 여성후보가 등록하여 화제.

후보 제14호로 출마의 사를 밝힌 주인공은 온타리오 런던출신으로 경제학자, 음악가, 선생, 사업가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인 데니스·스위니·세킨(53세)여사이다.

6남매의 어머니이기도 한 세킨여사는 한때 자유당 당수도전을 꿈꾸기도 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미인대회 화보 「주간한국」에

23일의 미인대회 화보가 오늘신문(27일자)과 함께 배부된 「주간한국」 12~13페이지에 게재됐읍니다.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푸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로렉스 오메가시계 45% ~50% 할인 귀국선물
은하보석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3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고혈압·관절염·동맥경화·장질환증세에 의학적 입증!

여러분의 건강관리는 라트롭 유카!

순수 자연건강제 라트롭 유카(LATHROP YUCCA)를 개발한 라트롭연구소는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금도 쉬지 않고 있읍니다.

수세기 전부터 비법으로 전수되고 있는 신비의 약재 열대식물을 현대의학에 의해 제품화한 라트롭 유카는 1975년부터 1982년까지 7년동안 2,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 연구진들의 임상실험을 거쳐 생산되는 것으로서 중년이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콜레스테롤(동맥경화), TRIGLY-CERIDES, 관절염, 복부팽만감, 장내개스, 간헐설사, 그외의 여러가지 장질환에 놀라운 효과를 주었으며 또한 예방이 되는것으로 미국 여러 의학지에 발표 되었읍니다.

특히 FDA(미식품의약국)의 검사를 받아 생산되는 라트롭 유카는 순수자연식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읍니다. (6개월 이상 복용 바랍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라트롭 유카를 꼭 확인 하십시요!

위의 상세한 연구 및 임상실험 결과보고는 의학지 「ARTHRITIS NEWS TODAY」1980년,2월호, 및 1982년 6월호. 의학지 「JOURNAL OF APPLIED NUTRITION TODAY」1978년4월호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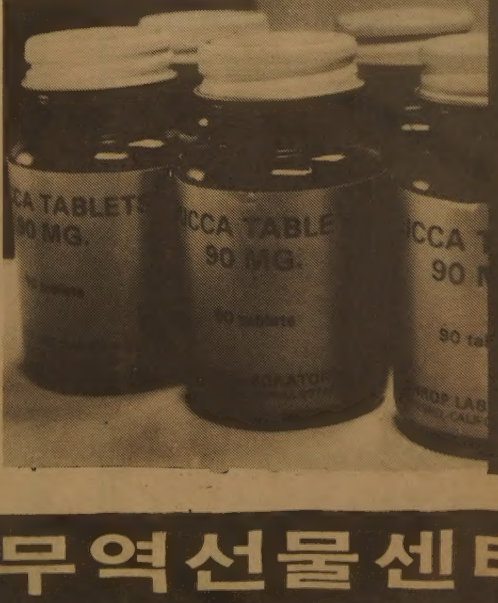
본 라트롭 유카를 직접 임상 실험했던 의학박사 로버트 빙햄
ROBERT BINGHAM M D
현 국립관절염 의학진료소 병원 원장
현 에스퍼낸자 인터컴유니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진들

고혈압 부분
○의학박사 & 전문의…빙햄(DR. ROBERT BINGHAM)
○내과전문의…………해리스(MD. HARRIS)
○생화학박사…………라가(PH. D. LAGAL)

관절염 부분
○의학박사 & 전문의…빙햄(DR. ROBERT BINGHAM)
○정형외과전문의………벨로우(M. D. JOEVA BELLOW)
○류마티스전문의………버날드(M. D. BERNARD)

다른 연구소 임상실험
○의학박사……폴아세손(DR. P. ISAASSON)
○의학박사……로버트엘리어트(DR. R. ELLIOTT)



★지역 판매처 모집★

빅 세븐의 세일품목
○고려인삼 6년근 $59.00
○북경 우황청심환진품 $18.00
○봄철 T샤쓰 $19.00
○London Fog 남자바바리 $99.00
○알라스카 생녹용 $69.00
○독일제 간장약 엣센샬
○여자용 물세무 코트

BIG SEVEN TRADING CO

〈선물용품 20% 할인.

660 Bloor St. W.
TORONTO, ONTARIO
☎ : 533-7966. 533-8110
대표 김영철

빅*세븐무역선물센타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캐나다대표 선발전 개최

5월14일 위니펙 이암태권도장

캐나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태권도연맹 캐나다협회와 위니펙소재의 이암태권도도장 공동주최로 오는 5월14일(토) 이암태권도장에서 열린다.

금년 10월 덴마크에서 실시되는 세계태권도대회 출전 최종선발전이 될 이 경기는 캐나다전국의 약40개의 도장에서 각체급유단자 120~150여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FIN급, FLY급, BANTHAM급, FEATHER급등에는 현재 각주에서 수련중인 교포청소년들이 대거 출전하게 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참석예정인 인사로는 캐나다태권도협회장이며 캐나다하원 부의장인로이드·프란시스(Lloyd Francis)박사와 위니펙시장인 윌리엄·노리(William Norrie)씨등을 비롯한 오재기한인회장, 박영호실협회장등이다.

이암태권도장 주소는 414 Graham Ave, Winnipeg, Manitoba, R3C 0L8이며, 전화는 1-204-942-5664 혹은 1-204-943-3097.

신고전화 쇄도

키난양살해범 현상금인상발표후

◆수배령이 내린 하우

메트로토론토경찰은 키난양 살해범으로 수배중인 데니스·하우(Dennis M. Howe)의 현상금을 5만달러로 인상 발표 후 75건의 신고전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담당 데이브·부스비형사는 이같은 전화신고에 만족을 표하고 누구든지 범인색출자 검거에 도움만 되면 지체없이 현상금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범인이 변장을 해서 콧수염을 기를지는 모르나, 자신의 신장은 줄일수 없으며, 턱의 상처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범인의 새끼손가락이 꾸부러져 못쓰며, 줄담배를 피우는 헤비스모커라고 강조했다.

키난양(9세)은 지난 2월1일 강간치사로 살해된지 10일만에 100미터 떨어진 이웃집 냉장고에서 발견되었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20>

헤로인 ⑮

X와 헤로인의 행방을 함께 찾아라

『X가 헤로인과 관계가 있다는 건가?』

대머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네, 어쩐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째서 그렇지?』

모두가 마인을 주목했다。마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직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뭐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읍니다。그렇지만 이런건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X는 홍콩을 출발해서 도오꾜를 경유, 한국에 들어왔읍니다。그리고 트라이앵글의 거점역시 홍콩입니다。우연인지는 모르지만 홍콩이 동시에 등장합니다。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한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X는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 거지?』

『헤로인 6킬로 그램이 문제로 등장한 것은 작년 여름이었읍니다。운반책들이 먹어치우려고 그건 가지고 잠적한 것이지요。그런데 그 물건이 한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국내에서 돌고있읍니다。그만한 물건이라면 국제 암시장에 내놓아야만 소화시킬 수 있을겁니다。한국에서 그걸 소화시킨다는건 불가능합니다。물건이 아직도 한국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유는 조직에서 눈에 불을켜고 그것을 찾고있기 때문일겁니다。그들은 물건을 찾고 배신자들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되어 있을 것이 뻔합니다。그들역시 물건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있을 것이 틀림없읍니다。X는 그런 사고가 난지 6개월뒤에 한국에 잠입했읍니다。만일 그의 한국 잠입이 헤로인을 노린 것이라면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읍니다。하나는 그가 어디선가 정보를 얻고 독단적으로 그 헤로인을 탈취하기 위해서 잠입했을 가능성입니다。2천만달러라면 목숨을 걸고 한번 달려들만 하지않겠습니까。』

朴男 그림

『하긴 그래。』

대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하나는 그가 트라이앵글에 고용되었을 가능성입니다。조직에서는 X같은 인물의 도움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네, 사람은 얼마든지 있겠지요。하지만 그들은 지난6개월동안 잃은 헤로인을 찾아내지 못했읍니다。그만하면 그들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X를 고용한 것은 조직 내에 그만한 인물이 없었기때문이지요。비싸더라도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X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매우 그럴듯한 추리로군。』

빈정거리는 소리에 대머리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야。하지만 증거가 포착될때까지는 두 파트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시키도록해。X담당반은 그대로 계속 놈을 쫓도록 하고 나머지는 헤로인의 행방을 찾도록 해요。박두봉 박문자에 대한 심문도 계속해요。』

회의가 막 끝나가려고 할 때 보고가 들어왔다。

전화로 보고를 받은 대머리는 벌떡 일어섰다。

교민가게에 복면강도

현금 200달러 털려

영과 웨레스리 선상에 있는 던도날드(Dundonald St.) 3번지에 소재한 영·버라이어티(Yonge Variety) 스토어에 칼을 들고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 가게를 보던 종업원 박찬씨에게 칼을 들이대고 계산대 설합에서 현금 200여달러를 털어 달아났다고 토론토·선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메트로경찰 보도를 인용하면서 사건당시 가게안에는 2명의 고객이 있었으나 피한이 박씨에게 칼을 내미는 것을 보고 달아나 버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몸이 마르고 블루진을 입었으며 백(bag)을 든 범인을 찾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비자카드 이자율

18.6%로 인하

캐나다 커머스은행(Imperial Bank of Commerce)은 오는 8월부터 비자·크레딧·카드(Visa Credit Card)에 부과하던 년21%의 이자율을 18.6%로 인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한편 동은행은 전 비자카드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User Fee)도 약간 인하해서 년$12, 혹은 월50센트의 기본료에 1회처리비용 15센트씩 가산된다고 발표했다. 은행창구에서의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다.

〈바로 잡읍니다〉

4월23일자 2면에 실린 「완인태권도장 장학금 설치」제하의 기사중 「완인태권도장」을 「완인태권 무도회」로 정정합니다.

『교향악과 가곡의 밤』 성료

테너 엄정행 교수 토론토 첫선

경희대 성악과장인 테너 엄정행교수와 제주대사대 전임강사인 쏘프라노 전지현교수가 토론토 교민에게 첫선을 보였다.

이들은 24일 오후8시 로이·톰슨홀에서 개최된 토론토한인교향악단(지휘 김승순)이 주최한 「교향악과 가곡의 밤」에서 토론토에서 활약중인 이주연씨와 미국에서 온 바리톤 신경욱씨와 함께 한국가곡을 불렀다.

미국각지에서 16차례나 독창회를 가진바 있는 엄교수는 장일남작곡 「비목」과, 한국민요 「박연폭포」를 불러 2,000여 관중으로부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최근 서울 세종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져 호평을 받았던 전교수는 홍난파곡 「옛동산에 올라」와 김동진곡 「신아리랑」을 불렀다.

김동진곡 「가고파」를 부른 신경욱씨는 현재 미국텍사스주 루부보크 소재 텍사스 테크 대학교 성악부교수로 재직중이다. 토론토소재 로얄·컨서베이토리 전임인 이주연교수는 김동진곡 「내마음」을 불렀다.

◆엄정행씨

특히 토론토한인교향악단은 이날 제6회 정기공연을 통해 유신씨가 작곡한 「관현악을 위한 고담」을 연주했는데 한국인이 쓴 교향곡이 캐나다에서 연주되기는 이번이 처음인것으로 알려졌다.

모국에서 온 엄교수와 전교수는 이날 가곡의 밤에 출연하기 앞서 토론토한인연합교회에서 성가를 독창하기도 했다.

캐나다 하키팀 선전

서독에 3대1로 승리

(문헨) 캐나다아이스하키대표팀(Team Canada)이 서독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선수권대회 예선전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어 메달권에 한발자국 다가섰다.

세계강호들과 대전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팀은 25일 서독과의 대전에서 도 3:1로 승리함으로서 26일 대전할 소련과 스웨덴의 결과에 따라 메달·라운드에 진출하게 된다.

캐나다는 스웨덴에 이미 한번 패한바 있으나 강호 소련이 스웨덴을 제압할 경우 정세는 바뀌어 캐나다승점 10, 스웨덴 승점 9점이 되어, 예선2위로 올라간다.

금년경기에서 채택된 승률포인트제 경기방식에 의거, 전경기 패율과 관계없이 결승에 오를 수 있다.

MTV(채널47, 케이블4)는 만약 캐나다가 예선2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면 앞으로의 경기실황을 중계방송한다.

방영스케줄은 28일(목) 오후2시, 30일(토) 오전11시, 5월2일(월)오후12:30이다.

1년상환 11%

모기지이자율 하락

1년상환 주택모기지가 26일 0.25% 하락한 11%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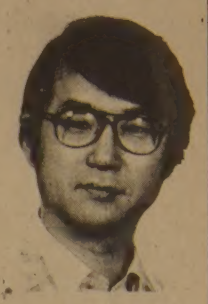
5년상환 모기지도 역시 0.25% 떨어진 13.75%를 기록했는데 2~3년형은 아직 유동이 없다.

한편 로얄은행, 캐나다 트러스트, 토론토 도미니언은행도 이같은 하락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현대적 속담풀이〉

『등잔밑이 어둡다』

오강남(종교학박사)


◆오강남씨

독일의 시성 괴테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말도 모른다」고 했다. 현대 종교학의 창시자 막스뮬러(Muller, 1823-1900)는 이 말이 언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고 선언했다.

우리 중에는 종교나 철학의 문제라면 서양사람들만 생각해본 일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한국에서 대학다닐때만해도 철학개론 시간이면 탈레스가 어떻고, 쏘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고, 칸트, 떼깔트뜨, 누구누구하다가 끝났다.

그 후 철학을 논한다는 것은 서양철학사를 들추는 것, 종교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종교사를 살피는 것 쯤으로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이야기다.

영국의 사상가 알더스·헉슬리라는 사람은 1940년대 초반에 출판된 그의 책에서 그당시 동양종교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번역되고 소개된 형편인데도 서양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종교나 형이상학의 문제에 관한한 유대인이나 희랍인이나 기독교인들이외에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무식은 전적으로 자의적이고 고의적이며, 불합리하고 챙피스런 일일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모든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와 같이 신학적 제국주의도 영원한 세계평화에 위협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서양사람들 중에는 동양의 종교사상에 심취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하므로 기독교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 대표적예로 20세기 미국종교사상들 중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토마스·멀튼을 들 수 있다. 그는 「서양이 동양의 정신적 유산을 낮게 평가하거나 등한시하기를 계속한다면 인류와 인류의 문명을 위협하는 비극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선언했다.

동양인 자신들은 어떤가? 아니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유산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는가? 슬프지만 선뜻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는것 같다. 아직도 한국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마치 「빛은 서방에서」가 현대판 진리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뭣이나 서양것이면 좋고, 옳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가 특히 한국 기독교의 경우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동양의 종교사상이나 철학을 배격하고 서양역사에서 형성된 기독교사상에만 충성하는 것 쯤으로 믿고 있다.

기독교 신앙과 동양의 정신적 유산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합하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손을 잡으며 진리와 거짓이 어이 어울릴수 있느냐고 한다. 따라서 동양의 전통적 종교사상에 대해 무식하면 할수록 더욱 충성스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으로 믿는다.

혹시 동양사상에 대해 듣거나 읽거나 인용하려면 오로지 그것을 반박하고 비웃기 위해서만일 뿐이다.

토인비에 의하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어차피 배타적인 종교로서 자기들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속이 시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도 요즘 서양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절대적인 배타주의에서 탈피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에만 계시가 있고 모든 타종교들은 「거짓 종교」라고 주장하여 기독교 배타주의의 참피언이던 칼·발트가 죽고 그의 후계자로 들어선 하인리히·옷트마저도 얼마전 캐나다에 왔을때, 에드먼턴저널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 열린마음,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일은 모든 종교전통들의 공헌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룰수가 없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폴·틸리히도 그가 죽기전, 그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세계종교의 빛 아래서 새로운 조직신학을 써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서양사람들이 동양의 정신적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어느때까지 강건너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의 전통적 종교사상에 대해 물어오는 그들에게 「등잔밑이 본래 어두운 법이니라」하는 진리말을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임무일까?

*R형, F.Capra가 최근 펴낸 The Turning Point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소의 體重과다도 健康에영향

50~62세 1파운드 늘어도 死亡率2% 커져

비만한 사람이 정상체중의 사람에 비해 일찍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체중이 약간 더 나가는 사람도 사망확률이 높아진다는 의학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매서추세츠주 의사들이 26년동안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소의 체중과다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통념과 달리 단지 20%정도만 체중이더 나가도 사망률을 눈에 띄게 높여준다고 말했다.

연구에서 밝혀진 이상적 체중의 기준은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가 책정한 높은 현재의 기준보다는 59년도의 기준, 5피트5인치(165cm) 신장에 152파운드(68.4kg), 6피트(180cm)에 161파운드(72.5kg)에 가깝다.

나이가 많을수록 체중과다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져 30-49세 연령층에선 체중1파운드 과다마다 사망위험도가 1% 커지는데 비해, 50-62세에서는 2%다.

여윈집단과 비만집단의 사망률은 크게 차이가 났으나, 여윈사람중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비만한 사람의 사망률과 별차이 없었다.

반면 날씬한 몸매를 위해 지나치게 절식을 하는 여성들은 식욕결핍증에 걸리거나, 성적발달에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 여성들이 날씬해지는것에 더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구의 전당

KIM'S ART GALLERY

교민을 위한 본 한국인의 가구공장에서는 언제나 최대의 신용과 친절을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읍니다

김석환올림

□한국 고유의 각종 가구 전문.
□옥돌가구(자연석을 깎아 조각을 떠서 가구에 박음)
□각종 동양화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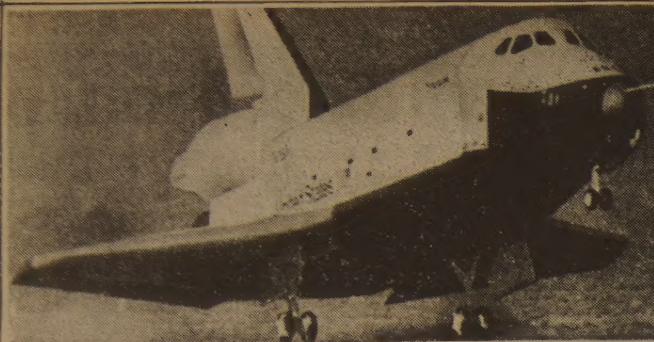
★주문생산 환영, 맞춤전문

기술자 : 고영재 고전가구 전문목공사
김명환 칠기사

1198 WESTON RD.
TORONTO. TEL : 247-3226

1286 WESTON RD.
TORONTO TEL : 243-0233

OPENING HOURS
MON - FRI: 10:00 - 9:00
SAT: 10:00 - 6:00



◆77년도 최초의 우주왕복선이었던 엔터프라이스호가 캐나다에 선보이기 위해 오는 6월 오타와에 올 예정이다.

우주왕복선 오타와에 온다

제2후보지는 토론토나 몬트리얼

1977년 세계 최초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우주왕복선 엔터프라이스(Enterprise)호가 오는 6월에 일반에게 전시하기 위해 캐나다에 온다.

해외전시로는 2번째가 될 오타와 방문은 747점보항공기위에 부착되어 착륙하게 된다.

미항공우주국(NASA) 관계자는 6월7일부터 10일까지 공식전시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는 캐나다가 미우주산업개발에 크게 공헌한 보답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샤틀계획에 가담, 고장난 위성을 수리하고 수송할 수 있는 우주선의 팔(Space arm)을 제작해 납품해 왔다.

만약 예정된 오타와공항이 불편하게 되면 토론토나 몬트리얼공항이 제2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관람객은 스페이스·샤틀 46미터(150피트) 전방까지는 접근금지된다.

엔터프라이스호는 이미 파리의 항공쇼에 선보인 경력이 있다.

여성을 위한 세미나

30일 런던한인회 주최

런던한인회(회장 : 강상권)는 오는 30일(토) 오후6시 런던한인장로교회(530 Topping Lane, London, Ont.)에서 「여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런던한인천주교회의 김병운신부이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한인교포 여성들이 각급 직장에서 겪는 진급문제(Promotion), 보수문제(Salary), 차별대우문제(Racial Problems), 각종골치거리(Harassment)등에 대한 대책과 가정내에서의 부인, 어머니로서의 역할(Housewife—Domestic Problems)에 대해 다루게 된다.

참가자격은 런던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전화는 681-6925(R),432-5931(B)로 하면 된다.

「코리언·킬러」 소탕작전

KK단 용의자 3명 검거

(LA지사)한인컴뮤니티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벌이고 있는 한인청소년 조직갱단 「코리언·킬러(KK)」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 동양인수사과는 코리아타운파출소의 협조를 얻어 지난12일 「KK」단의 주요멤버들을 체포한데 이어, 21일에는 LA시내 한 아파트를 급습, 3명의 「KK」단 멤버용의자를 추가 검거했다.

LAPD동양인수사과, 램파트경찰서, 코리아타운파출소의 정사복경찰관 8명으로 편성된 2개 수사반은 21일 1가와 버질애비뉴의 한 아파트에 모여있는 민석기(19), 유진석(20), 이태회(22)등 3명을 위조, 무기사용, 폭행, 교통법규위반등의 혐의로 각각 체포했다.

작년초 발생한 한인소녀집단강간사건이후 크게 표면화되어온 「KK」단의 횡포는 코리아타운내 일부유흥업소와 교외 한인주택가들을 그 표적으로해 탈선과 범법행위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LAPD수사관들은 「KK」단 멤버들이 폭행, 절도행각을 일삼고 있으며, 거의가 전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한인갱단들의 범법활동은 최근들어 타주와 연결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특히 하와이주 한인갱단으로 알려진 「Eagles」의 조직범죄단 일당8명을 지난달 체포한 이후 LA와 호놀롤루 수사당국은 이들 잔여멤버의 LA잠입가능성을 파악 소재수사를 펴고 있다.

하와이 경찰국에 의해 대거검거된 현지한인갱단중 21세의 김인송은 살인기도, 절도, 강도, 폭행등 7가지의 죄목으로 16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었다.

이번 「KK」단 멤버체포에 큰 역할을 해낸 코리아타운파출소의 왈리·헐경찰관은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한인컴뮤니티 곳곳에 파고들어 있는 갱단의 일제소탕을 위해서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5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5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사 및
성 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어드릴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심층에 안내 事件취재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寧邦人脈을 편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연재소설〉

혼돈 ⑨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제1편 출국

"애자씨가 아직도 저를 애숭씨라고 부르는 것 말입니다"

"성함을 알으켜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던가요? 내 이름은 김덕수입니다. 다음부터는 덕수씨하고 다정하게 부르도록 하세요"

나는 흐물흐물 웃으며, (김덕수)하고 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가장 흔하고 촌스러운 이름임에 틀림없었지만 소중한 이름처럼 가슴에 새겨졌다.

사랑이란 이처럼 온화한 것일까? 10년의 세월을 두고 적대하며 복수하리라 결심했던 남성중의 하나를, 견고하게 닫혔던 내 가슴의 문을 열고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냉냉하던 가슴이 더워오고, 많은 말을 조잘거리고 싶고, 피로하고 고달프기만 하던 지난 생활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나는 내 자신을 의심할 만큼 부드럽고 연약한 여성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소리가 이별의 시간을 재촉해 가는 시계의 초침소리처럼 들리는 순간 순간마다 나는 창공에 빛나는 별들을 보기도 하고 풍상으로 표피가 갈라진 고목의 가지끝에 봄이면 새순이 파랗게 돋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술집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아쉬움에 머무적거리기만 하던 그도 옷을 여미며 일어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먼 곳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로 하여금 새 생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덕수씨?"

"가시자고요?"

"그게 아니예요. 나는 오늘밤 덕수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생각과는 엉뚱한 방향의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 나왔다.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던 그가 빤히 나를 마주보았다.

(어차피 나는 떠나야 해요. 오늘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될 거예요.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준 당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몸을 당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숫처녀는 아니지만말이예요.)

속으로 독백을 하며 나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의 공백이 흘렀다.

"애자씨는 저를 시험하고 계시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읍니다"

그가 비시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진실인 걸요?"

"애자씨에게 더 이상 애숭이 취급은 받기 싫습니다. 농담할 시간이 없읍니다"

그는 여유를 주지 않고 일어나 계산대 앞으로 걸어갔다.

야릇한 감정이 가슴에 머물다 사라졌다. 배신감 같기도 하고, 아쉬움 같기도한 복잡한 감정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성은 내 적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며 이완되었던 신경들을 긴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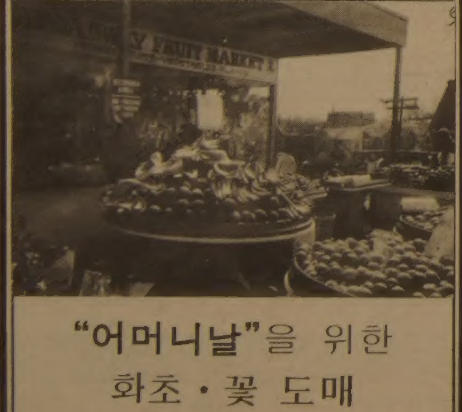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날 어린 나를 내리 누르며 "조그만 참으라"던 소름끼치는 의붓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고, "벗어라, 벗어라"소리치던 음흉한 아우성, 무던히도 짓밟고 멸시하던 지배인, 순종하지 않으면 창녀로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여 하룻밤을 희롱하던 여관주인, 희미해 가던 수모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 악마의 모습으로 머리속에서 우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숨이 가빠오고 미칠것 같았다.

"악마의 남성들이여! 나는 복수할거다"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며 술집을 뛰쳐나왔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쳐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고통을 견딜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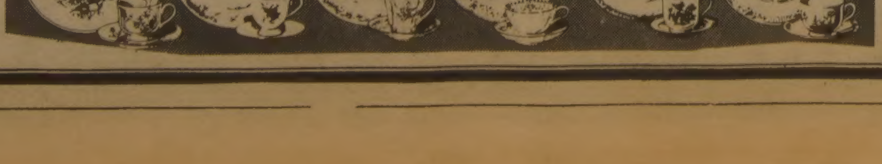
(계속)

오늘밤 내 몸과
마음을 당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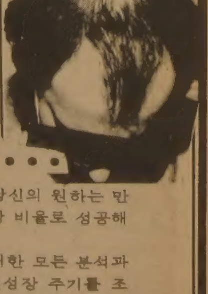


"어머니날"을 위한
화초·꽃 도매
✲주문배달 접수중✲
— 친절봉사
— 저렴한 가격
☎ 465-8167
Mr. 곽 Mr. 김

The Sol
… FINE GIFT STORE …
세일기간 : 4월15(금)~30일(토)
품목 • ■각종 Noritake Dinner Ware
■Crystal 제품
■China ware
■Silver ware
■각종 대나무 가구및 일반제품
Noritake
1032 ST. CLAIR AVE. W.
(쎄인·클레어×Oakwood 서쪽)
☎656-4315 MRS. 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새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요。



YES IT'S TRUE . . .
우리 전문가들은 당신의 원하는 만족한 결과의 85%이상 비율로 성공해 왔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에 대한 모든 분석과 최신시설로써 머리털성장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당신의 머리털 손실을 감소해 드립니다.
우리훈련된 전문가는 머리털의 근본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 자신을 갖고 치료합니다.
고민 있으신분, 당장 연락바랍니다.
You're only your hair to Gain!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십시요.
▲매일(월~금) : 오전11시~오후8시
▲ (토) : 오전9시~오후3시
'HAIR RESEARCH CENTR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종교계소식

선교100주년기념준비 연합성회

5월1일부터 3일간 한인장로교회에서

1984년도 한국선교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국외적으로 이를 기념하고 성령으로 하나되어 새로운 선교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준비 토론토연합성회」가 오는 4월29일(금)부터 5월1일(일)까지 3일간 매일밤 7시30분에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에서 열린다.

토론토지구기념성회 준비위원회의 주최와 토론토한인교역자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집회의 강사는 한국의 100주년 기념사업회 총재인 한경직목사(영락교회 원로목사)이다.

본 집회의 설교제목을 보면 ▲4월29일 "백년의 은총"(시편 103:1-8), ▲4월30일 "시작과 나중"(욥 8:1-7), ▲5월1일 "은혜받는 교회"(벧전 4:7-11).

한편 한인합창단, 동부장로교회 성가대, 한인장로교회 성가대가 각각 순서를 담당한다.

이번 성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회장 : 계화삼
부대회장 : 박희민·최상봉
준비위원장 : 김재광
총무 : 조이식
회계 : 고성원·안정식
예배위원 : 조창환
홍보위원 : 장은덕·심상대
재정위원 : 구연원, 전태균, 이준희, 조두현, 홍중표
안내위원 : 강대길·이창진
음악위원 : 박재훈·권순국
동원위원 : 정관일·조성관·김희학
섭외위원 : 박준하·조진동
부녀위원 : 윤수복
청년위원 : 정호영
학생위원 : 존·리

"한국은 종교自由 제한국"

종교잡지 A·D誌, 설문조사서 지적

(워싱턴=UPI)종교탄압국가 13개와 종교자유제한국가 12개가 발표되었다.

연합그리스도교와, 미연합장로교가 공동으로 발간한 종교잡지 「A.D」지는 교회와 정부관리들의 종교적 자유를 중심으로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종교탄압국가는 교회 및 전도활동을 지극히 제한하는 나라로 북한및 알바니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테말라, 이디오피아, 엘살바돌, 체코슬라바키아, 소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터어키, 파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자유제한국가는 종교인의 정치, 사회활동을 저지하고 종교간의 대립, 종교적 이념반대 시위가 성행하는 곳으로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버마, 가나, 네팔, 남아프리카, 타이완, 시리아, 이스라엘, 칠레, 우루과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이 잡지는 조사결과 공산권을 포함, 세계모든곳에서 최소한 예배는 허용되고 있어 종교적으로는 풍성한 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봄맞이 바자회

성산교회, 5월7일

성산교회(담임목사 계화삼)는 오는 5월7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동교회 여전도회 주최의 어머니주일기념 "봄맞이 바자회"를 갖는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본 바자회의 출품 품목을 보면 고추장, 된장, 오징어, 젖, 창란젖등의 밑반찬과 조미료, 김치종류, 굴비, 동태, 각종 떡종류, 의류, 화초, 만두국, 짜장면, 국밥 을 포함한 점심식사등이다.

바자회 장소는 1384 Weston Rd.(at Jane St.) Weston이다.

교회대항 배구대회

30일 오버리어고등학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카나다노회(노회장 안병한목사) 주최와, 빌라델비아장로교회(담임목사 김경진) 주관, 배구협회후원의 각교회 친선배구대회가 오는 4월30일 오전 8시30분부터 Overlea고등학교(Don Mills at Overlea소재)에서 열린다.

9인제(성인), 6인제(학생) 경기방식으로 열리는 이번대회의 시상은 1, 2, 3등과 장려상이 수여된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이번대회의 참가비는 팀당 $80.

경기에 대한 문의는 284-3541(이준규집사)로.

충현, 탁구대회 개최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일환

충현교회(담임목사 박경남) 남전도회는 23일 본교회 창립2주년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제1회 친선탁구대회를 개최했다.

25명이 참가한 이날의 경기는 남여 개인단식과 단체(혼합복식)전으로 진행되었는데 전적은 다음과 같다.

◆남자개인◆
1등 김종조(남전도회)
2등 박승락(남전도회)
3등 이근희(청년회)
김승춘(학생회)
◆여자개인◆
1등 전명희(여전도회)
2등 김종금(여전도회)
3등 김지영(학생회)
◆단체전◆
1등 청년회
2등 학생회
3등 남·여전도회

신임회장단 선출

장로연합회

장로연합회는 최근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단을 선출했다.

16일 동부장로교회에서 열린 이날의 총회에는 2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는데 현재 가입교회는 20교회.

이날 선출된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이준희장로(동부장로교회)
*이광옥장로(충현교회)
*조두현장로(제일장로교회)
*고성원장로(영락교회)

창립7주년 예배

베다니성결교회

베다니성결교회(담임목사 김요한)는 5월1일 주일에 동교회 창립제7주년 기념 예배를 갖는다.

동교회는 이날 예배후 어린이주일과 창립기념주일을 함께 자축하는 대내적인 행사를 벌린다.

교역자동정

*최규식(한인천주교본당신부)=5월2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과 이태리 성지를 순례한다.

*박희민(한인장로교회담임)=최근 신간설교집 "신앙과 생활"을 발간했다.

*이태환(토론토교회담임)=지난24일 본교회 제2대목사로 취임했다.

*노윤거(원로목사)=순복음토론토교회에서 설교.

*이필주(순복음토론토교회)=4월25일부터 서울대조동 순복음교회(박정근목사담임)에서 열리는 부흥성회의 강사로 초빙되어 한국을 방문중이다. 이번 방문중 이목사는 세계선교대회에도 참석하며, 그외에도 4개교회의 집회를 인도하고 1개월 체류후 귀임할 예정.

미국인 60% 예수재림 믿어

갤럽여론조사, 최근 조사결과 밝혀

미국인중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비율은 계속 높지만, 성경과 교회에 관한 지식은 충격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선교로 유명한 밥·쉴러목사(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의 위촉으로 갤럽여론조사회가 1천5백명의 미국인들을 인터뷰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민의 60%는 예수의 지상 재림을 믿고 있다.

이들 응답자중 86%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55%가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수가 신의 속성을 가졌었다고 믿는 사람은 40%, 그리고 예수가 인간의 제약된 생명을 갖고 특별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52%였다.

또한 예수의 신격을 믿지 않고서도 진실한 기독교신자가 될 수 있다는 응답자는 5분의 1,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영원한 삶」을 가질수 있다는 사람이 3분의 1이였다.

그리고 예수와 똑같이 모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2%였다.

성경지식은 정확치 않아서 신약성경의 4복음서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46%였고, 「산상설교」가 예수 자신의 설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42%에 불과했다. 예수의 탄생지를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70%였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39%, 그리고 성경은 전설, 비유, 역사서, 도덕경에 불과하다고 답한 사람은 12%였다.

성경과 교회에관한 지식 떨어져
86%"기도통해 하나님과對話"
永生을 믿는 사람은 불과 30%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쉴러목사는 미국인들이 예수의 진정한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반갑지만, 신앙심의 열도와 종교지식이 약한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갤럽씨(2세)자신은 미국인들의 신앙이 퇴락했으며, 생활화되지 않은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일반화된 우려를 이 조사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씨 간증집회

5월15일 새한교회

새한교회(담임목사 김상호)는 24일 창립제9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금년 기념행사를 위해 계획되었던 원충연집사 전도간증집회는 입국비자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 무기연기되어 이날은 대내적으로만 축하 잔치를 가졌다.

한편 동교회는 오는 5월 3째주일(5월15일) 김대중씨 신앙간증(비데오 테잎)회를 갖는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성령강림절 기념성회

토론토영락교회

토론토영락교회(담임목사 김재광)는 오는 5월12일부터 15일까지 "성령강림절 기념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의 강사는 LA영락교회 김계용목사이다.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액자및 성화
714 BLOOR ST. W. ☎535-1920

교회안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응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준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세상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관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안상염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N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총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연합교회 (United Church)				
몬트리올한인연합교회	배한국	주일 오후 1:30	5964 Notredam de Grace Ave.	484-1338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택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922-3863 (복음다이얼) 922-0605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가나안	이정춘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Weston M9P 3A8	742-7010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63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욱회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오후 2:00, 4:30 새벽기도 5:30 금요기도 밤 9:0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423-9880 복음다이얼 423-840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Downsview, M3H 3C3	(생명의 전화)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961-8361 622-2181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 783-5881 (204) 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R)533-1377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한인연합펜티코스탈	안하현	주일오후 1: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안식일교회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기도원				
오순절기도원				
토론토기도원				
협신기도원	이광옥		75 Emmett Ave. #1005, Toronto M6M 5A7	245-1687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 11:00 평일기도 오후 2:00 토요집회 오후 2:00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onto M4E 3L7	698-536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 마태복음 8:13)

"日의 有事時 大韓해협봉쇄는 우리協力 전제돼야"

國防委 日과 71년부터 情報교류

內務委 市道의 財政자립도 60%

◇22일 국회內務委에서 盧泰愚내무장관ⓐ과 李海龜치안본부장이 현황보고도중 의원들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國會、11개常委열고 報告·질의

국회는 22일 經科·商工委를 제외한 11개常委를일제히 열고 소관부처에대한 현황보고를 들었다.

특히 內務委는 이날金根祖씨에대한경찰관의폭행수사 및 大邱디스코클럽 화재사건등에관해 질의를 벌였으며 國防委는 최근의北傀동향에대한 보고를듣고 질의를했다.

【國防委】 尹誠敏국방장관은 이날 「韓·美·日3角安保체제」에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대한 답변에서 『이번 韓美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채 양측의 기본입장만밝혔다』고 말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韓日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미국을主軸으로 해야지 미국이빠지고 대신 일본으로 자리바꿈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임을 분명히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韓日軍事협력문제와관련、『1단계협력은 情報、人事交流로서 인사교류는 69년부터 실시하고있고 정보교류는 71년부터 그리고 지난77년부터연2회씩정보 교류회의를가져왔다』면서 『2단계협력문제는 미국의 주도적역할을 전제로 실증히 검토한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尹장관은 일본의 有事時 大韓海峽봉쇄문제에 관련, 『美해군의 對蘇방위에 도움이 된다고보나 대한해협봉쇄문제는 우리의 협력을 전제로 해야 될것』이라고 답변했다.

【內務委】 내무부는 지방자치제실시의 전제로 거론되고있는 각市·道의 財政自立度는 서울을포함, 전국평균 60%이고 서울을제외하고는 48%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재정자립도가 제일높은곳은 서울의 97%이고다음은 釜山(95%) 仁川(93%) 大邱(89%)의 順이다.

나머지 각道의 자립도는 다음과같다.

▲京畿=54%▲江原=26%▲忠北=30%▲忠南=36%▲全北=28%▲全南=30%▲慶北=29%▲慶南=42%▲濟州=30%

內務·文敎 해임권고 결의안 與野激論끝에 上程

국회運營委는 22일 民韓黨이 제출한 盧泰愚 내무、李奎浩 문교장관에대한 解任권고 결의안을 두고「議案으로 성립될수 없다」고 철회를 주장하는 民正黨측과 「일반議案으로 성립될수있다」고 上程을 주장한 民韓黨간에 장시간 激論을 벌여 회의가 두차례 停會끝에 일단 운영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는 이결의의안을다룰 소관常委를 결정한뒤 국무총리실등의 現況보고를들을 예정이었으나 이결의안에대한 違法性논쟁으로 現況보고청취는 다음으로 미루었다.

民正黨측은 民韓黨이 낸 解任권고결의안은 사실상 解任결의안과 동일한것이기때문에 국회의원 在籍3분의1이상의 발의에 의해 국무위원해임안을 제출할수있도록한 헌법99조에 違背된다고 주장, 해임권고결의안자체가 議案으로 성립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民韓黨은 의원 20人이상의 발의만 있으면 어떤 議案이라도 제출할수 있기때문에 해임권고 결의안은 의안으로서의 성립에 아무런 하자가없다고 반박했다.

轉賣 0순위 417명 13억4천만원 追徵

國稅廳、국회報告

국세청은 0순위통장 전매자에대한 1단계추적조사와 별도로 앞으로도 민간아파트신규분양계약때입회조사를 실시, 0순위통장전매자를 끝까지 가려낼 방침이다.

22일 국세청은 국회재무위원회에서한 보고를통해 그동안 0순위통장전매자에대한 추적조사결과 전체조사대상 4천8백9명가운데 전매행위자는 4백17명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모두 13억4천4백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거인기업체의 유명아파트 전매추적조사에서 통상 25~30%가 전매됐던사실로 미루어 1단계 추적조사에서드러난것외에 약 4~5백명정도가 사실상 전매된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철저히 가려내 모두 세금을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민간아파트신규분양계약때입회조사를 강화하는한편 분양대금납부때에는 대금추적조사를하고 명의이전단계에서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0순위 전매행위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낼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10월이후서울開浦洞에서분양한 우성、경남、선경、한보(미도) 아파트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1천5백49세대에 대한·투기성전매행위 추적조사결과 양도세 42억5천4백만원과 증여세 1억5천9백만원등 모두 44억1천3백만원을 추징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美、蘇외교관 3명 追放

【워싱턴AP·AFP=聯】미국정부는 3명의 미국주재소련외교관에게 『그들의 지위에 적합하지않은 행위』를한 혐의로 추방명령을내렸다고 국무성이 21일 발표했다.

美연방수사국(FBI)도 이날 성명을 통해 3명의 소련관리들이 이날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방명령을 받았으며 이중 한사람은 이미 미국을 떠났다고 밝혔다.

국무성은 워싱턴주재 蘇대사관무관인 예브게니·바르미얀체프공군과 유엔주재 蘇대표직원 알렉산드르·미케에프가 「가능한한조속히」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성은 駐美소련대사 아나톨리·도브리닌을 이날하오 국무성으로 소환、이같은 美정부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하고 역시 유엔주재 蘇대표부직원 올레크·콘스탄티노프도 「용납할수 없는 활동」을 한 혐의로 추방명령을 받기전 자신이 출국했으며 미국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濠도 1명추방

【캔버라AP聯=聯】호주정부는 22일 캔버라주재소련대사관의 1등서기관 발레리·니콜라예비치·이바노프를 간첩활동혐의로 추방령을 내렸다고 빌·헤이든 호주외상이 발표했다.

헤이든 외상은 이바노프가 소련 KGB(국가보안위원회) 소속 정보장교라고 밝히고 그에게 7일간의 출국시한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헤이든외상은 이날 짤막한 추방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바노프가지난1981년 호주에 도착한이래 호주국가안보에 위협을줄 정도로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스파이활동을 벌여 정부가 이같은 추방령을 내리게됐다고 덧붙였다.

호주주재 소련대사 니콜라이·소우다리코프는 이날 아침 호주정부로부터 이같은 추방령에대해 통고받았으나 대사관대변인은 이에대해 논평을회피했다.

◇全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3호기 준공식이 끝난뒤 발전소내부를 둘러보고있다.

"에너지節約 생활화를"

全대통령、原電3호기 준공식치사

【月城=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22일 한방울의 기름도 나지않는 우리로서는 항상 에너지위기를 맞이하고있다는 의식아래 절약을 생활화하고 그토대위에서 모든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경北月城郡陽南面羅兒里에서 있은 發電설비 1천만㎾ 돌파및 原電3호기 준공식에 참석、치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우리 모두 굳건한 主人의식을 기르고 절약에 힘쓰면서 기술개발노력을 지속해 에너지自立기반을 다지고 경제의 제2도약을 가져오는데 다함께 힘차게 전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렇다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에너지의 自立기반을 튼튼하게 넓혀가는일은 정부와 산업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슬기와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보다 에너지의 절약에 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특히 原子力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원자력시대를 전개하는 오늘을계기로 기술진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돼 연구에연구를 거듭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건설의 國産化를 촉진해 멀지않아 우리의 힘으로 원자력을이용 개발하게될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장크고 鮮明한 한국일보活字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디스코홀·카바레등 舞蹈유흥업소 밤12시로 營業시간단축

業主는 미성년자 確認、出入규제의무

정부는 앞으로 관광호텔과 기타외국인을위한 業所를 제외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디스코클럽포함)등 舞蹈유흥음식점의 영업마감시간을 子正까지로 앞당기기로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22일 大邱의 고고·디스코클럽火災사고의 원인을분석, 청소년有害업소출입억제종합대책을마련, 관계部處에 이같이 시달하고 18세미만과 高校이하의학생들이 유흥음식점이나 簡易酒店、또는 미성년자의 觀覽不可공연물상영극장에 출입하는것을 강력히규제키위해 業主들의 출입자年齡확인을 의무화하기로했다.

金相浹국무총리는 이지시에서 관계법규를 개정、업주들에게 有害業所출입자의연령을확인할수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업소에대한不時확인단속을 月1회이상실시토록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들의출입을 묵인한 有害업소나有害한 환경을 제공한 업소의 업주에 대해서는 法定最高刑을 求刑하는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현행벌칙이 '미흡하다고판단, 刑量을 上向조정키위해미성년자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위반업소들이 행정처분(1차위반때 영업정지15일, 2차위반때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하는 경우엔 斷電、斷水로 강력히 제재하고▲대중음식점이나 전문음식점의 청소년에 대한 酒類판매행위▲인삼찻집의 酒類판매행위▲다방의 深夜주류판매및 陰畵상영등 퇴폐행위▲숙박업소의 청소년混宿 묵인행위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키로했다.

社會漫評

"大盜인지 나발인지 때문에 골치 아픈일 또 생겼군…"

地平線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선도하기 위하여 디스코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도도 함께 취하기로 결정하고 미성년자보호법의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는듯 하다. ▼김상협국무총리가 22일 각부처에 시달한 「청소년유해업소출입억제종합대책」은 그밖에도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묵인한 업주에겐 구속을원칙으로 형사처벌을 가한다는것이다. 이런 조치는 청소년비행이 현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증임과 동시에 현대사회가 안고있는 그 문제성의 심각함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선도는 새삼스러운 오늘의 문제인것만은 아니다. 기성세대들은 어느 시대에서든 『요즘의 젊은이 들은…』하고 청소년들을 탓하며 지내 온것이 인간의 역사라 할수가 있다. 청소년문제란 필경은 한시대나 한국가의 정신적인 문제일뿐 독자적인 문제일수가 없는데 문제성은 있다고 보아야할것이다. ▼역사적으로 돌이킬때 청소년이 슬기롭고 바람직스러운 상으로두드러진 것은 3국 통일의 힘의 원천이라고도 할수있는 신라때 젊은이 들이었다. 또 그들로 하여금 높은 도덕적차원에 머물게 했던 시대정신과 위정자들의 역량도 저버릴수가 없다. ▼신라의 위정자들이나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무리를 짓게하여 도의로써 서로의 인격을 다스리게 하고 노래와 음악으로 어울려 즐기게 했으며 산과 물을 찾아 노닐게 하여 나라의 대들보로 길렀다. 아득한 역사의 고지가 이러한데 오늘의 기성세대가 무엇으로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수없다. ▼문교당국은 청소년을 위해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그들을향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 시비곡직을 따지기전에 청소년문제는 성급한 대중요법보다는 긴안목의 대책과 그들을 따뜻이 감싸는 기성사회전체의 「선의」가 앞서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직원모집

새로 설립된 김치공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실업자구제정책에 의거하여 한인사회내에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계획하에서 현재 실업중이며 더이상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1)자 격: 가) 현재 실업중인 분으로 UIC지원을 더 받을 수 없는 분.
나) 신체건강하며 계속 고용을 원하시는 분.
다) 한국음식(저림종류)을 맛있게 조제할 수 있는 분.

(2)모집인원 및 대우
가) 공장지배인 1명 주당 $400이상
나) 재료조달사 1명 시간당$8.00이상대우
다) 저림사 3명 시간당$7.00이상대우
라) 포장사 1명 시간당$7.00이상대우
마) 배달운전사 1명 시간당$8.00이상대우

(3)등 록 처: JANE & LAWRENCE WEST MANPOWER CENTER 또는
NEW MARKET MANPOWER CENTER

(4)문 의 처: ☎248-6389(토론토), 또는 (1)-775-6256(농학농장)

(5)근무예정: 4월25일경부터

1983년 4월21일

KIM CHI CANADA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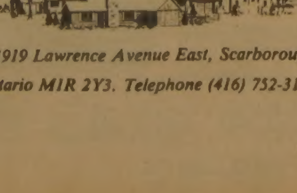
ROYAL TRUST CORPORATION OF CANADA

곽석용

로얄 트러스트 부동산은 곽석용씨를 내셔널 리더스 클럽의 일원으로 선정한 것을 자랑스럽게 알립니다.

곽씨는 1919 로렌스 에비뉴 이스트 브랜치에서 10년 근속을 했읍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크게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번 기회를 맞아 그를 표창합니다.



1919 Lawrence Avenue East, Scarborough, Ontario M1R 2Y3. Telephone (416) 752-3111

ROYAL TRUST REAL ESTATE IS PROUD TO ANNOUNCE THE APPOINTMENT OF MR. SUK YONG KWAK TO THE RANKS OF NATIONAL LEADERS CLUB. 1983 MARKS HIS 10th YEAR OF SERVICE WITH THE COMPANY AT 1919 LAWRENCE AVENUE E., BRANCH: 752-3111. HIS WEALTH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S HIGHLY APPRECIATED BY HIS PEERS AND WE HONOUR HIM ON THIS OCCASSION.

ROYAL TRUST CORPORATION OF CANADA REALTOR

Mr. H. Lillioja(Branch Manager)

이軍·아랍게릴라 衝突

양측 6명死亡… 시리아 進攻說

【텔아비브·베이루트AP聯=聯】레바논주재 美대사관 폭파사건이후 처음으로 레바논주둔 이스라엘군 철수를 위한 레바논과 이스라엘및 미국간의 철군협상이 재개된가운데 아랍게릴라와 이스라엘軍이 충돌, 양측에서 모두 6명의 사망자를 냄으로써 새로운 戰雲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軍사령부는 21일 레바논내 시리아-이스라엘전선에서 벌어진 충돌로 2명의 이스라엘군과 4명의 게릴라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시리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스라엘軍과 레바논내 이스라엘주둔군진지로 침투하려는 게릴라간의 이러한 충돌은 최근 시리아가 레바논내에서의 활동을 증가시키고있고 소련의 對시리아군사지원이 강화되고있다는 보도가 나돈가운데 벌여져 시리아가 공세를펼지도모른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부분석가들은 이러한 戰雲을둘러싼 움직임이 이스라엘주둔군 철수를 위한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간의 협상을 저해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일밤 이스라엘주둔군진지로침투하려던게릴라들은 시리아가 차지하고있는 영토로부터 들어왔는데 이들이시리아 人인지 팔레스타인 人인지는 밝혀지지않았다.

한편 이스라엘·레바논과 미국대표는 21일 이스라엘軍철수를 위한 제1차회담을 갖기위해 할레시에 도착했다.

◇레바논 各國대사관 非常…伊軍도 방어작업 21일 베이루트주재 이탈리아대사관앞에서 이탈리아軍人들이 모래주머니를 쌓고있다. 이것은 美大使館폭발사건이후 각국대사관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베이루트21日UPI電=聯】

美、의회에예산촉구 公館보호부대 창설

【워싱턴AP·UPI=聯】조지·슐츠美국무장관은 21일 美해외공관의 안전보호임무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부대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회에 촉구했다.

국경戰雲 고조

中共·越、2년만에 最惡의 무력충돌

【北京·하노이AP AFP=聯】中共과 베트남은 20일 상대방군인들이 월경도발을 자행해 인명피해를 냈다고 각각 주장했으며 관측통들은 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의 타이공격과 관련돼 촉발된 것이 분명한 이번의 일련의 양국국경충돌이 81년5월이후 발생한 최악의 무력충돌이라고 강조함으로써 中共·베트남접경의 전운을 한층 짙게했다.

中共관영新華社통신은 일단의 베트남군이 20일 야음을타 雲南省의 中共경초소에 대한 두차례의 기습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하고 이들이 中共軍의 반격으로 모두 16명의 사망자를 내채 국경너머로 퇴각했다고 강조했다.

東南亞지역서도 暗躍 蘇첩자 名單공개

홍콩誌 간첩提報받아 보도

【홍콩·자카르타UPI=聯】소련대사관원으로「외교적비호」를 받고있는 소련인 첩보망이 동남아지역에 대한 소련의 군사및외교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콩에서 발간되는 주간아시아위크誌가 21일보도했다.

이 잡지는 4월29일자 최신호에서 소련인 고위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첩자들에 대한 조사는 소련인 첩자 1명이 잡지 자카르타 주재 특파원 조허·압둘카림에게 접근하여 정보제공대가로 한달에 20만달러까지 제의한 것으로 밝혀진뒤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잡지는 압둘·카림사건이 일어난데다 마침 일본내 소련첩자들의 활동상이 폭로됐기때문에 아시아 여러 수도들에서 활약중인 소련첩자들의 이름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잡지는 이들 확인된 소련의 첩자들이 KGB(소련비밀경찰)나 GPU(소련참모본부정보부)를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잡지가 확인한첩자들의 이름은 다음과같다.

▲마닐라=KGB주재원 블라딜렌·아브시우코프 대사관 1등서기관으로가장. ▲콸라룸푸르=KGB주재원 비야체슬라프·안드레예비치 대사관부상무관으로 가장. GPU요원 유리·구젠코 대사관부관으로가장.

▲싱가포르=KGB주재원 블라디미르·피오도로비치·미쿠노프 대사관참사관으로 가장. GPU주재원 예브간리·이그나티예비치·쿠투조프 대사관참사관 가장.

▲방콕=KGB주재원 예브게니·페도로비치·하리토노프 1등서기관 가장.

日산께이紙 편집국장 辭表

KGB협력자 폭로와 관련

【東京=宋孝彬특파원】前소련KGB(비밀경찰)일본공작원 레프첸코 소령에 의해 일본내 KGB협력자로 폭로된바 있는 산께이(産經)신문의 야마네(山根卓二) 편집국장이 21일 사표를 제출, 22일 수리됐다.

야마네국장은 사직원에서『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사명감을 잠시도 잊은적이 없으나 KGB가 제공한 가짜 周恩來유서를 기사화한등 경솔한점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결과적으로 KGB의 모략에 이용당했다』고 사퇴이유를밝혔다.

波노조 바웬사 25일부터 근무

【바르샤바AP聯=聯】폴란드의 해체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그의 옛직장인 그다니스크의 레닌조선소 전기공에 복직됐다.

바웬사는 오는 25일부터 근무할것이라고 그의 친척들이 밝혔다.

外信 안테나

金正日、공식後繼者로 곧 主席될듯

"金日成 직책떠맡는다" 소문 파다해

【홍콩=聯】北傀는 金正日을 곧 主席에 앉혀 金日成의 공식후계자로 임명할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홍콩의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가 21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날 東京발 기사에서 일본에있는 北傀소식통들은 올해41세의 金正日을 金日成의 후계자로 지명하는 공식행사는 없을것이라고 말하고있으나 平壤에서는 현재 金正日이 金日成의 직책을 떠맡을것이라는 견해가 매우 강력하게 나돌고있다는 한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伊聯政 붕괴위기에 社會黨 총선요구로

【로마AP=聯】이탈리아연정에 참여하고있는 社會黨이 21일 조기총선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밝혀져 아민토레·판파니 수상이 이끄는 연정은 출범5개월만에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이탈리아연정은 自由黨·社民黨·基社黨·社會黨등4당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지난79년 총선에서 10%의지지를 획득한 社會黨은 조기총선을 실시할경우 의석을 좀더 늘릴수 있을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美、북태평양서 대규모 機動훈련

45년후 최대규모…蘇기지에 近接

【東京聯=聯】미국은 지난1945년이후 북태평양에 파견한 군사력으로는 최대규모의 함대가 참가한 군사기동훈련을 이번주 실시, 東시베리아에 위치한 민감한 소련군사기지 근처를 순항함으로써 소련을조롱했다고 軍소식통들이 21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약35척의 水上함정과 수미상의 잠수함이 소련태평양함대의 모항인 페트로파블로프스크에서 수백㎞ 떨어진 수역까지 진입했다고 말했다.

美망명선수 후나孃 플로리다에서 修學

【샌프란시스코AP=聯】美國망명으로 美·中共외교관계에 파문을 던졌던 中共출신 테니스 스타인 후나(胡娜)양이 플로리다州 브라덴톤에 있는 테니스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20일 플로리다에 도착했다고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紙가 21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지역의 中國人가정에서 생활해온 후나양이 사라소타북쪽 브라덴톤소재의 니크·볼레티에리테니스학교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브라덴톤까지 후나양과 동행한 볼레티에리씨는『후나양이 테니스만을 배우고 또 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산안드레스에 戰鬪機 주둔 검토

美、中美분쟁激化때 쿠바封鎖고려

【뉴욕AP=聯】미국은 中美지역의 분쟁이 점점 확대됨에따라 온두라스나 니카라과 동부연안에서 멀리 떨어져있지않은 산 안드레스에 전투기를 주둔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美CBS·TV방송이 20일 보도했다.

CBS는 미국은 中美분쟁이 한층 더 격화될 경우 쿠바에대한 공중및 해상봉쇄를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비아機송환할듯

【브라질리아AP=聯】브라질은 니카라과行 무기를적재한채 브라질당국에의해 억류돼있는 4대의 리비아수송기를 돌려줄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21일말했다.

◇皇太子의 웰링턴의 밤 濠洲에 이어 뉴질랜드를 방문중인 英國의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妃가 21일뉴질랜드수도웰링턴의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있다. 【웰링턴21日AP電=聯】

학교는惡魔、戰線은 최고의大學

★이라크紙 "이란少年 포로가말했다" 주장

최근對이라크전에서 이란을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된 10여명의 이란 소년들은 20일 어른들이 자기들을 전장에 보내면서『戰線은 산교육을받는최고의대학』이란말을하더라고폭로.

이라크의 일간지 알·이라크는 이날 이란당국은9세~16세사이의 이들 소년들에게『학교는 악마의 소굴이라 아무것도 배울게없으며 戰線이 가장 훌륭한 대학』이라면서 이들을 2주일간 훈련시켜 전선에 투입했다고 한 포로소년이 폭로한 것으로 보도.【外電】

문공장관 초청 언론인 간담회

문공장관을 초청한 언론인 간담회가 22일하오 올림피아호텔에서 국내신문·통신·방송사장및임원1백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주관으로 열렸는데 오는29일 2차간담회가 같은곳에서 열릴예정이다.

海外토픽

마피아소굴 女市長

55세의 독신 여의사가악명높은 마피아의 범죄소굴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省都 팔레르모市의 첫 여시장으로 선출되어 마피아단 일소를 다짐하고 있다고.【外】

人事異動

서울시 ▲올림픽기획단장 沈桂燮▲〃기획담당관 柳東柱▲〃 權泰政▲〃 李裕澤▲木洞·新亭洞개발준비요원 朴炯遠 (22日字)

社說

公職사회의 虛點들

—受賂·貴金屬출처문제등을 보며

돈이면 다 통하는 폐단과 虛點은 하루속히 이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위험한 病理현상이다. 내 돈 가지고 내마음대로 하겠다는 發想도 마찬가지다. 특히 公職관계에선 이런현상을 멀리하는「청렴」이야말로 바른직분과 공익질서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대구 디스코홀 화재는 참사 자체도 끔찍하지만, 그 원인등의 조사결과가 더 뒷맛이 쓰다. 검찰이 밝혀낸 참화의 불씨는 결국「뇌물」이었다고 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업허가와 행정단속과정, 그리고 소방점검에서 업자의 돈이「公職의 눈」을 가린 혐의가 잡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관련공무원 10명을「편의제공혐의」로 연행조사중이라 한다.

이 사고를 계기로 밝혀낸 서울시내 유흥접객업소의「實態」도 한심한 지경이다. 전체업소 가운데 16.4%가 소방시설不良임이 드러났다. 그동안 계속된 조사와 단속이 문밖에서 맴돌았거나 헛돌았다는 반증 같기도 하다. 또 合法을 가장한 脫法的 영업행위도 있어 왔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나, 公職사회의 虛點을들여다 볼수있다. 행정의 단속이 엄포와 형식으로 그쳐진 미흡이 깔려있는 것이다. 게다가 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눈가림을 했다는 혐의사실은 바로 공무원의 직무유기란 또하나의 맹점을 알수 있게 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직사회의 淨化를 위해 꾸준히 힘을 기울여 온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도 예상치 못한 사고와 사건이 통겨져 나왔다. 따지고보면 공무원 기강의 해이라는 공백이 그 한 원인일 것이다.

극히 적은 수의 공직자가 非違를 저질러도 전체의 신망이 떨어진다. 牧民의 기본은「청렴」과 조리에서 시작된다. 타성적인 폐습, 病弊, 허상이 가셔져야 밝은사회가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뇌물과 그에서 오는 형식주의 행정풍토는 더이상용납되어선안될줄안다.

세칭 大盜로 불린 절도범 趙世衡의 탈주사건으로드러난 엄청난 호화 귀중품의 출처와 유통도 국민의입장에선 의아스러운것이다. 국회질의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裵命仁법무장관은 필요하다면 피해품중 귀금속과 패물의 通關적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궁금한것은 그 出處다. 과연 관세를 물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금수품이니 密輸의 경로로 손에 쥐어졌는지 따져봐야 옳다. 아울러 그 유통과정도 추적하여 어떻게 일부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에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혀 국민의 궁금증과 사회의 虛點을 풀고 가려야 한다.

그가운데 몇몇희귀품은 市中에 잘 안나도는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어떻게 몇집에서 쏟아져 나왔는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며 아리송하기만 한것이다. 피해자를 비난하자는 뜻이 아니라 所有까지의 경로가 합법적이었나를 알아보자는 것이다.「法의 관용」에 어떤 차별이 있다면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所有」는 떳떳해야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이 난다. 밀수행위가 국민경제에 어떤 해독을 끼치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것이다. 50년대의 밀수행위는 지금도 惡夢처럼 남아있다. 法的 時効를 내세워 그냥 덮어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바람은 결코 단순히 흥미거리나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다. 허상없는 질서와 내실을 우리사회에서 더 찾기위한것이다.

公職의 윤리를 재확인하고 그 사회일각에서 드러난 虛點을 自省하면서 하자없는 공무를 다하도록 온갖 보완노력이 뒤따르기를 바란다. 일부 공무원 스스로의 차분한성찰이 앞서야 할것으로 믿는다.

蘇聯스파이 追放파동

—連鎖反應의 정치적衝擊 크다

유럽에서 시작된 서방 각국의 소련스파이 추방파동이 우리의발등에도 불똥을 튕기고 있다. 동·서 화해무드가 한창이던 70년대 이래 잠잠했던 외교무대에「제2냉전시대」를 예감할만큼 스산한 찬바람이 일고있는 것이다. 더구나 근자엔 소련스파이 조직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의 코앞인 일본에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받지 않을수없다.

이번 스파이파동은 영국·이탈리아·스페인등 서유럽의 주요지역에서 동남아와 미국에 이르기까지 연쇄반응 처럼 일어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지난 5일 한꺼번에 47명의 소련인을 몰아낸 프랑스의 결정은 근래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수있다.

동북아인 일본에서는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 정보기관 요원 레프첸코가 거물급 일본인 협력자들의 명단을 밝힘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소련 스파이 조직과 접촉했던 협력자중에는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끼어 있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이들은 한·일관계의 정보를 소련에 넘겨준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스파이위성기술의 발달로 이들 소련스파이의 활동패턴도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이 드러나 있는것 같다. 군사력배치나 그 이동상황에 관한 전술 전략적인 정보보다는 산업및 군사기술이 활동대상으로 되고있다.

작년초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내놓은 보고서도 소련이 합법·비합법의 경로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대규모의 조직적활동을 펴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CIA에 의하면 서방측 각국내 소련 스파이들은「수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내무성의 정보기관은 80년말 현재 소련의 공용여권을 갖고 프랑스에 와있는 5백21명가운데 1백81명이 스파이기관원이었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지난81년말 미국의 레이건행정부가 소련에대한 고급기술수출에 브레이크를 건 연후 서방 각국에서 활동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기술정보를 빼내려던 소련 스파이들은 스위스와 스웨덴 덴마크를 포함해서 유럽각국에서 작년 한해동안 모두 23명이 쫓겨났다.

한편 소련의 스파이활동후 대중 가장 허술한 지역은 특히 일본일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3월초 미국의 틀라우어국방성 기술연구담당차관보는『東京이 자유세계에서 소련으로 군사정보가 흘러나가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경고했었다. 현재 일본에서 암약중인 소련의 스파이는 1백여명으로 짐작되고있다.

서방 각국에서 연쇄반응 처럼 일어나고 있는 소련스파이 추방파동은 첨단기술, 특히 군사기술의 우위를 지키려는 서방측의 결의를 표현한 것으로 볼수있다.

그 스파이추방파동이 갖는 정치적인 충격도 기술경쟁이상으로 클것이 확실하다. 프랑스의 경우 미테랑정부는 경제정책실패로 관경에 빠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유럽에서 反核운동 바람과 맞서있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전략도 유리한 분위기의 전환을 기대할수있다.

그러나 동아방위의 일선을 떠맡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허술한 對蘇 첩보체제에 상응한 경고를 보내지않을수 없다. 26명의 거물급 협력자명단이 밝혀짐으로써 일본의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지만, 그것이 소련 영향력의 일본국내 침투를 막는계기가 된다면 뒤늦게나마「轉禍爲福」이 될게 틀림없다.

政局往來

內務·法務 벽두에謝過

22일재개된국회 각常委는各部장관들의 현황보고에앞서 개편된 소관常任위원들에게 부처의 고위간부들을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내무위에서 盧泰愚내무장관은『金根祖씨사건 大邱화재등 일련의 사고에 심려를끼쳐 죄송하다』면서『金씨사건은 그 문제점과 교훈을 거울삼아 어떤형태의 폭력도 근절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실천하겠으며 민주복사경찰像 수립에 최선을다할것을 재삼 다짐한다』고 강조.

또 법사위에서 裵命仁법무장관은『금년들어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건이일어나고 최근 矯正행정의 실수로 脫走사건까지일어나 죄송스럽다』면서 趙世衡사건에 대해 사과한뒤『옛말에 守令方伯이 善政을하면 고을이 편안하다고했는데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사건이 일어난것같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문교위에서 李奎浩문교장관은『선진교육 없이 선진조국이없다는 신념하에 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한뒤 간부소개에 들어갔는데 林在正의원(民韓)이 회의장에 나온 朴日載私學年金관리公團 이사장에 대해『과거國保委때 면직된 사람이 어떻게다시 재등용됐냐』고 호통을쳐서 눈길을모았는데 李장관은『82년7월이후 再등용할수있게 법적조치되었다』고 답변.

한편 외무위에서 李範錫외무장관은『국제의회연맹(IPU)서울총회의 성공적개최를위해 외무부는 熱과誠을 다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다짐했다.

野、게릴라式 질문전개

내무부 현황보고를 들은 22일의 국회내무위는 民韓, 국민등야당의원들이 보고도중 게릴라식질문을 던져 이를 말리는 曺淇相위원장職代와 한동안 실랑이.

국제의회연맹(IPU)이사회참석을 위해 출국한 權正達위원장을 대신해 民正黨간사자격으로 위원장직대리로 사회를 본 曺위원은 吳洪錫, 柳寅範, 柳漢相, 李英駿, 申宰休, 高炳鉉(이상民韓), 李成一, 曺德鉉의원(이상국민)등 야당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도될 사항까지 일일이 註釋을 달아가며 묻자『질의는 간사협의대로 정책질의시간에해달라』고 요청.

이에 高의원은『보고내용을 잊을까봐 알아보는 것 뿐』이라며 한걸음 더 나아가『위원장이 인사중 국회의원의 品位유지云云했는데 의원의 품위까지 신경을 쓸필요가 없다』며 그 대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것을 요청.

李成一의원은『曺위원장대리가 첫날부터 의원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1~2분간씩묻는 것이 뭐가 그리급해서 그러는가. 당돌한 부탁이지만 앞으로주의해달라』고 거꾸로 注文하기까지.

이에 曺위원장職代는『잘 알아듣겠으며 조심하겠다』고 위기를 모면했다.

裵法務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사건 일어난 것 같아 죄송…"

解任案싸고 法理논쟁

22일 상·하오 국회운영위는 民韓黨이낸 盧泰愚내무 李奎浩문교장관의 解任권고결의안에대한 소관常委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초반, 民正黨이 이 결의안의 適法性여부를 제기함으로써 與野의 律士출신들이 총동원된 근 3시간동안 法理攻防戰.

상오 회의에서 玄敬大의원(民正)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이 결의안의 소관常委 논의전에 適法性여부부터 먼저 결정하자』면서『民韓黨측이 헌법사항을 일반議案으로 둔갑시켜 제기하는 것은 脫法행위』라고 공격.

이에 民韓黨의 金永俊의원은『헌법상의 解任결의안과 民韓黨이 제출한 해임권고결의안은 事案이 다른것으로 民正黨측이 曰可曰否하는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

상오에이어 하오회의에서도 甲論乙駁으로 팽팽한 接戰이계속되자 李鍾贊위원장이『이 결의안을 일단 운영위에넘겨「모든문제」를 다시 논의해나가자』고 설득한끝에 一段落.

暴言의원등에 懲戒論

民韓黨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常委배정에 불만을 품고 林鍾基총무등에게 항의 폭언을 한 사실을 두고 柳致松총재가 黨紀委에 진상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태로 발전.

발단은 財務委를 희망했다가 經科委에 배정된 李爽鎔의원이 지난20일저녁 林총무가 入院중인 국립의료원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데서 비롯된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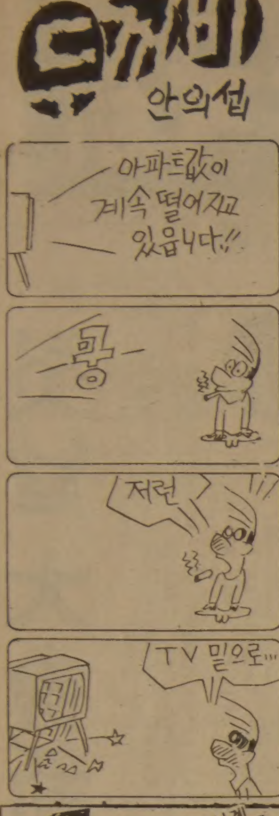
林총무주장에 의하면 李의원이 잠바차림에 술이취해 들어와 고성으로 폭언을하는등 소란을피워 의사와 간호원들이 간신히 말렸다는것.

그런데 李의원이외에도 전국구출신의 S의원등 일부初選의원들도 常委배정에 불만, 총재와 총무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총무부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소식.

한편 이같은 폭언사태에 대해 간부들은『野黨史上 전례없는 일로서 紀綱확립을위해서도 마땅히 懲戒해야한다』고 怒氣.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거구장 새로 주방장이 왔읍니다.
과거의 음식맛이
완전 달라졌읍니다.
특별출연
"저음의 가수"
배 성
매력의 가수 한준희
월~목 오전11시~새벽1시
금 오전11시~새벽2시
토 오후 2시~새벽2시
일요일 오후 2시~새벽1시
회갑, 생일. 동창회 파티와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드럼 : 권 순 근
□키타 : 신 상 철
□올갠 : 함 효 상
5 BETHRIDGE RD.
ETOBICOCKE
742-1618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示範택시 日收 6~7만원

運營2개월 결과 2교대근무·社納金폐지 가능

택시1대의 하루 총수입금은 6만4천1백29원이며 운전사가 1일 2교대를할경우 하루 7만원까지 수입을 올릴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2월10일 교통부가 택시운행개선책의 자료수집을위해 설립한 시범택시의 영업결과 얻어진 자료인데 택시회사들이 운전사관리만 잘하고 전자미터기를 부착할경우 현재의 사납금 6만2천원의 상한선을 없앨수 있다는 결론이다。

택시50대와 운전사 1백5명으로운영하기시작한시범택시는운전사2교대제를 시험하기위해 30대는 격일제, 20대는 1일 2교대제로운행하고있는데 2교대제는 하루수입금이 7만2백6원, 1교대제는 6만4천1백29원으로 50대를 평균하면 1일수입금이 6만5천5백50원이었다。

시범택시는 일반택시회사의 실태를 비교분석하기위해 노사간의 합의기준에 준해 운전사 월급을정하면서 사납금제도를 실험적으로 없애고 성과급만 적용했는데 격일제의경우 1개월14일을 근무한 운전사에 28만2천2백40원 (보너스포함)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범택시 운전사 평균월급은 31만3천7백40원으로 3만여원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직영택시회사가 실시하는 사납금 6만2천원을 기준으로할때 시범택시운전사는 29만7천원이고 일반택시는 28만1천3백40원으로 약 1만5천원의 차이가생기고 있다。

교통부는 특히 시범택시를 설립하면서 사납금을채우기 위한 법규위반사례를 체크했는데 49일동안 택시50대가 저지른 법규위반이 5건, 사고발생이 7건으로 나타나 회사택시보다사고및 법규위반이 훨씬 적었다。 특히 2일 2교대제의경우 법규위반과 사고발생이 각1건으로 사고를줄이는데 운전사 사납금폐지와함께 1일2교대제가 큰 기여를 하고있음을 입증해주고있다。

교통부는 택시회사의 수입증대와 운전사 월급인상을 위해서 뿐아니라 사고감소를 위해서도 1일 2교대제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운전사의 오랜 타성과 하오 근무자의 피로회복이 늦는등의 이유로 아직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회사택시 운전사들이 노사협의로 대부분 연장철야근무를 하는 실정이어서 급료만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면 1일2교대제를 정착시킬수있다고 내다봤다。

露店商 회충약에 3男妹숨져

【靈岩】21일 하오4시30분께 전남 靈岩郡三湖面三湖里876 고옥순씨(33)집에서 고씨의큰아들 김기석군(12·삼호국교3년)큰딸 숙희양(7) 둘째딸 은숙양(5)등 3자매가 노점에서 사온 회충약을먹고 숨졌다。

이들3자매는 고씨가 사온 회충약을먹고 10분이지난뒤 어지럽다며 구토를하고 쓰러져 木浦성코롬방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聯】

7백29명 표창
체신의날 기념식

22일은 제28회체신의날。체신부는 이날상오10시 기념식을갖고 체신발전에 공이큰 李晩榮교수(59·漢陽大)등 7명에게 국민훈장, 2명에게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유공체신공무원 7백10명에게 장관표창장을 각각 주었다。

훈장을 받은사람은 다음과 같다。

◇동백장▲李晩榮◇목련장▲康允弘(55·우취연합회부회장)▲趙鼎鉉(65·한국통신학회회장)◇석류장▲金完洙(54·한국전기통신공사보전국장)▲閔丙璟(64·한국전기통신연구소부소장)▲崔鋼泰(53·〃책임연구원)▲崔鎔淳(46·한국방송공사방송시설부장)

간첩침투 밤낮없고 간첩신고 휴일없다
간첩신고 자수표어

矯正局,「本部」로 개편

교정행정 쇄신책 마련 矯導官증원·教育강화

법무부는 22일 현재의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개편하고 교도관인력도 연차적으로 증원, 87년까지는 현재의 4천명(보안직)에서 25%가 증가한 5천명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가 趙世衡탈주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교정행정쇄신책은 또▲신임교도관의 직무교육을 위한 교정연수원설립과▲교도관의 사기를 높이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위한 교정공무원법제정등을 주된 내용으로하고있다。

법무부는 이번사건의 요인이 교도관의 업무미숙에 의한 판단잘못에도 있었던것으로 보고 이미추진중이던 교정연수원설립을 서둘러 84년7월부터는 신규임용되는 교도관에게 6개월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임교도관 직무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일반검찰공무원과 함께 3주간 실시하는게 고작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연수원 설립을위해 水原에 이미 10만평부지를 확보, 오는7월에 공사를 착공, 사격장,유격훈련장및 계호및호송교육을 위한 특수훈련장등을 갖추어 정예교도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가 제정키로한 교정공무원법은 적격자특별임용과 전문가특채및 특진등을 규정하는외에 직급증설및 직급별정원등을 포함시켜 교도관의 승진기회 확대로 사명감을 북돋워놓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市內버스 소매치기 일당6명 검거

【大邱】대구西部경찰서는 22일 시내버스를 무대로 1년여동안 8천5백여만원상당의 금품을 소매치기해온 속칭 동헌파 조직 소매치기단 두목 張東憲(26·대구시西區坪里洞2구1129), 일꾼 柳在根(23·대구시東區芳村洞15)등 6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경리책 金英鎬씨(31·대구시南區鳳德洞716) 를같은 혐의로 수배했다。【聯】

◇12輛탈선 호남선 한때마비 술취한 역무원의 실수로 정면충돌, 전복된화물차량。이사고로 호남선은 22일 하오 2시까지 상·하행선이 완전불통됐었다。【光州=聯】

消防官1명구속 2명입건
디스코홀火災, 돈받고시설未備묵인

【大邱】대구지검 특수부(朱光逸부장검사)는 22일 대구고급클럽 초원의집 업주로부터 뇌물을받고 소방시설의 미비점을 적발하고도 묵인해준 대구소방서 방호과 소방사 金炳주씨(33)를 뇌물수수및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대구소방서 西門路파출소장 金태수씨(27)와 소방사 강해중씨(27)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따르면 구속된 소방사 金씨는 초원의집에불이나기 10일전인 지난8일 하오7시께 초원의집에 대한 소방시설 보안점검을하면서 조명실과 무대 주방 사무실등에 화재감지기 5대가 설치되지 않은것을 적발하고도 업주 金炳수씨(38)로부터 1만원을 받고 시설이 완비된것처럼허위공문서를 작성, 소방서방호과예방계에 비치해둔 혐의이다。

이밖에 구속된 소방사 김씨는 지난8일 초원의집에대한 소방시설점검후 아래층에 위치한 쌍쌍고고클럽에도 소방점검을 하면서 화재감지기능이 마비된것을 알고도 업주 金상열씨(40)로부터 1만원을 받고 적격판정을 해주었다는 것이다。【聯】

5行뉴스

◆의료분쟁심사조정委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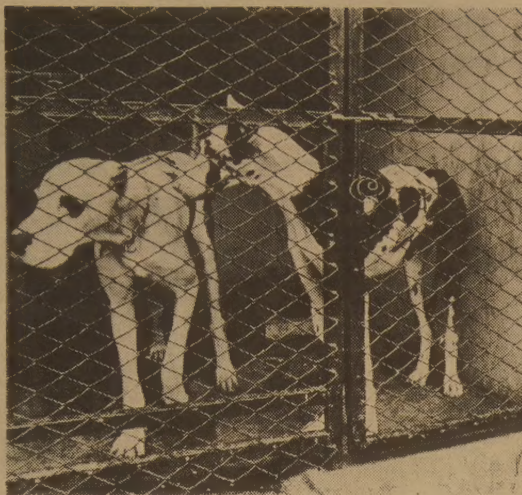
의사와 환자간에 일어나는 각종 의료분쟁을 조정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22일 발족돼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청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환자나 의사는 주거지및 병원소재지시도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청원할수있으며 분쟁이 해결될경우 민법상의 효력을갖게된다。

大型사냥개 그레이트데인·세인트버나드등

4~5백만원짜리 개 "飼育 붐"

올들어급증 月70마리 輸入
假需要…프리미엄 수십만원
大盜 寶石소동이어 庶民層 씁쓸



◇전세방값 넘는 輸入犬 국립동물검역소 서울지소에서 검역을 기다리고 있는 수입견들。한마리에 황소두마리값을 호가해도 없어서못파는 실정이다。

개한마리에 4백~5백만원,한쌍에 1천만원까지 한다면 곧이 들을까。

그러나 최근 일부 부유층에서 이같이 고가인 개를 한마리도 부족해 쌍으로 키우는 호사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마리가 웬만한 전세방값에 해당하는 개는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상견(犬)。이같은 고급개들은 수입에따른 외화지출도문제지만 먹는것도 모두 고급인데 특히 趙世衡의탈주극이 빚은 보석류파동의 뒤끝이라 이같은 얘기를들는 서민층으로서는 뒷맛이 개운치않다。

요즘들어 수입이 부쩍는 고급 개들은 주로 그레이트 데인 (Great Dane)、세인트 버나드(Saint Bernard) 등 몸집이 큰 호신용 또는 사냥용으로 한달에 70여마리 이상이 항공편으로 들어오고 있다。

22일 국립동물 검역소 서울지소 집계에따르면 지난1월 수입된 개98마리중 이런 종류의 고급관상견이 70마리였으나 지난 3월에는 1백70마리가운데 그레이트 데인이 무려 65마리, 세인트 버나드가 44마리였다。 이들 관상견은 지난해 8월까지만해도 애견가나 외국인이 데리고 오는것이 한달에 10마리에 불과했고 시중거래값도 1백여만원선에 맴돌았던것과 대비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요즘시세도 그레이트데인 1년생 암컷이 3백~5백만원, 수컷이 2백50~4백만원이며 1쌍이면 7백~8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호가한다。 또 새끼 한마리도 송아지값인 최하 1백만원이며 세인트버나드는 1마리에 1백50~3백만원에 팔리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가격과는달리 수입가자체는 그리 고가가 아니어서 국내수입상의 폭리가 숨어있다。수입선인 日本·대만·미국의 현지가격이 80~1백만원으로 여기에 20%의 수입관세와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물어도 개값은 1백50만원이 채 못된다。

그런데도 시중값이 터무니없이 비싼것은 수요가있고또 가수요를 노리고 애견센터들이 수십마리씩 확보해 놓고 있기때문。따라서 최근엔 개가모자라 수십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한번교미시켜주는데만도20~30만원씩 받고있다。

검역소직원들에 의하면 한동안 붐을이루던 치와와등 소형애완견수입은 뜸해지고 대형관상견수입이 눈에 두드러졌다는것인데 검역소는 이들을 수입견때문에 기존시설이 모자라 10여일간의 검역기간중 애를먹고 있다。또 수입상이나 개주인들은 『비싼개』라며 검역소에 급식을 맡기지않고 영양가높은 사식을 먹이고 있는 실정。 보통한끼에 쇠고기 1근은 보통이고 우유 닭고기 달걀부침에 외제통조림까지 급식하고있어 웬만한 도시인의식사보다 한결 고급이다。

그러나전문가들은애견가들이 좋은개를 기르는것을 나무랄 이유는없지만 외국의 명견(名犬)이 혈통과 훈련에따라 나오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일정종류의 개가 덩달아 고가에거래되는것은 한국적인 병폐의 한단면이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대한경비견등록본부 尹瑢根전무(48)는『그레이트데인은 추위를잘타 한국의 매운 기후에 적합치않다』며 한국산 진도견보다 영리하지도 않은데 관상용으로 수백만원씩들여 사들이는것은 이해할수없다고 말했다。

한국전견클럽협회 훈련부장 金昌根씨(50)도『이런 개들이 등록이 거의되지않은것을보면 우수한 혈통이 아닌것같다』며 이들개는 15년전에도 수입이됐으나 인기를 얻지못해 보신탕용으로 모두 팔린적이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개수입은 당분간는어날 추세。현재 10여개소의 개수입상이 신용장을개설하고 있는데 83년도 상반기 수출입공고에 따르면 개는 광견병에 방역증명서와 건강진단서만 첨부되면 수입자동품목으로돼있어 무제한 수입이 가능하다。그렇다고 수입을 규제할 경우 현재국내에 들여온 5백여마리의 관상견이 명견아닌 명견으로둔갑,아파트프리미엄과같이 어처구니없이 웃돈이붙는등 웃음거리가 될 우려도있다。【韓基泰기자】

貨物열차끼리 충돌

長城~安平역, 술취한驛務員 실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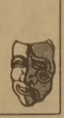
【光州】21일밤11시10분께 전남長城역과 安平역사이의 호남선 (大田기점 1백64·2㎞지점) 에서 술에취한 역무원의실수로 상하행선 화물열차가 정면충돌,화물차 12량이 탈선하면서 1억5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사고로 호남선 상·하행선이 22일 하오2시까지 불통됐다가 통행이 재개됐다。

이날사고는 裡里역을 떠나 松汀里로 가던 木浦기관차 사무소소속 1215호 화물열차 (기관사 李종관·32)와 松汀里에서 裡里로가던 裡里기관차 사무소소속 1115호 화물열차 (기관사 金정신) 가 長城역의 신호조작 잘못으로서로 충돌해 일어났는데 기관사 李종관씨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전남대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경찰조사결과 사고는 長城역근무 李창옥씨 (47)가 술에취한 상태에서 安平역에서 1215호를 발차시킨다는 신호를받고도 松汀里에서 裡里로 올라가던 1115호 열차에 통과신호를 해 일어났다。【聯】

「獨島 우표」
新星기업 기술이사 姜浩錫씨
28년전 日이 넘볼때 "우리땅" 圖案



정부가 펼치는 사업중「遞信」만큼 우리들 생활속에 깊이 파고드는 사업도 드물다。 편지와 천화등은 이미 생활의 일부로 불가분의 관계가됐다。그런데도 너무 가깝기때문인지 그고마움을 당연한것처럼 모르고 산다。체신의날(22일)이 돼도 기억해주는 사람조차 별로없을 정도다。

그러나 新星기업 기술이사 姜浩錫씨(69·사진)는 체신의 날을 자신의 생일만큼이나 소중히 여긴다。체신공무원도 아닌데…한때 우연한 기회로 우표를 도안한 인연으로 이날을 28년간 마음속으로나마 기념하고 있는것이다。

姜씨가 체신과 인연을 맺은것은 1954년9월이다。그때한참 독도를 두고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왔다。

당시 延禧 數物科를 나와 교직에 있던 姜씨는 우표의 도안한가지로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해소되기도 했다는 수많은 사례를 알게됐다。체신부 국내우편과장을 찾아가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뜻밖에도 반응이 빨랐다。극비에 1주일안에 도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사진작가에게 독도사진 2장을 얻어 밤을 새우며 펜으로 도안을 했다。이 도안에따라 조폐공사에서 3종(2환·5환·10환짜리)을 발행했다。지금의 인쇄수준으로보면 초라하기만 하지만 일본에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서 오는 우편물에 붙은 독도우표에 먹칠을해 배달한것。이것이 오히려 일본우표수집가들에게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우표수집상들이 한국에와 이우표를 대량으로 사가 비싸게 파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현상을 전해들은 姜씨는『우표엔 수많은 역사의 사연이 깃들여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임을느꼈고 우표한장이라도 소홀히 보지 않게끔 됐다。 이같은 우표에의 집착은 그를 우표수집가로 탈바꿈 시켜놓고 말았다。

姜씨는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부르는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들을때마다 독도우표를 도안했던 일을 되살리고 체신의 고마음을 느낀다。『전신 전화가 끊기고 우편물이 배달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하루만이라도 체신을 생각하자。【鄭在龍기자】

IATA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유승민
720 Spadina Ave.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니펙(이영호)204-783-0007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불루어×셀본서쪽)

Grant Brown
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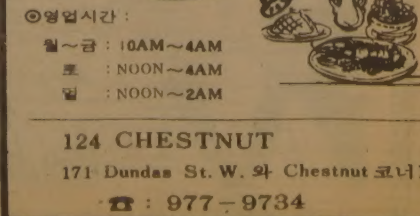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247-7161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호섭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10AM~4AM
토: NOON~4AM
일: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977-9734

千仁泰·方駿榮 한국新

全國수영대회 시즌開幕 화려한出發

첫날 大會新도 38개나

◇千仁泰선수

국가대표훈련단소속 方駿榮(경기고)과 千仁泰(한체대)가 각각 한국신기록을세워 83년 수영시즌 개막을 장식했다.

지난해 뉴델리아시안게임이후 첫 수영공식대회인 제38회 전국수영대회가 22일 잠실실내수영장에서 개막, 첫날 方駿榮 千仁泰가 한국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한국신기록 2개와 대회신기록 38개가 수립되었다.

아시안게임 접영 2백m 은메달리스트인 方駿榮은 이날 남고접영1백m에서 자신의 종전한국최고기록 58초60(82년·대통령기대회)을 0.28초단축한 58초32의 한국최고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千仁泰는 남대평영 2백m에서 2분29초55를 마크, 자신이 82년 동아수영대회에서 기록한 종전한국최고기록 2분32초41을 2초86 단축했다.

方駿榮의 접영 1백m기록은 뉴델리 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인 日本의 다이헤이·사까이의 57초27에 0.95초차를 보였다.

한편 첫경기로벌어진 남고혼계영4백m결승에서는 春川機工이 4분20초23으로 첫대회 신기록(종전 4분24초02)을 마크했으며 여자평영의 신예趙晟恩(신천국)、祥恩(〃)자매는 여국부평영1백m에참가, 언니 晟恩은 1분25초15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동생祥恩은 2위崔솔진(동성국·1분26초99)에 이어 1분33초38로 3위를 마크했다.

이번 대회에는 경영·수영·다이빙에 총6백62명(남4백8, 여2백54)이 참가, 3일간 열전을 벌인다.

◇첫날기록 <종목별 1위>

▲남고혼계영4백m=춘천기공 4분20초23 ▲동여고=삼명여고 4분53초05 ▲동남대=한체대 4분10초70 ▲동남일반=해룡 4분32초10 ▲동여대=공주사대 5분8초87 ▲동여일반=산업은 4분57초31 ▲동남중=편리 4분48초68 ▲동여중=근명 5분1초01 ▲남고배영2백m=①김효철(경북) 2분21초31 ▲남중평영 2백m=길동혁(소양) 2분46초72 ▲동여중=권두정(강남) 2분54초42 ▲남고접영1백m=방준영(경기) 58초32(한국신·종전 58초60) ▲남중배영2백m=황의석(서대문) 2분41초91 ▲남대평영2백m=천인태(한체대) 2분29초55(한국신·종전 2분32초41)

◇記錄에의 힘찬 挑戰 남고 접영1백m에서 뉴델리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方駿榮이 58초32의 한국신기록을 세워 수영 시즌오픈대회를 장식했다。

기대모으는 새人魚들

亞太 에이지그룹 水泳대회 참가앞둔 趙晟恩·祥恩자매와 崔碩祐·禎允남매

새로운 인어자매가 또다시 탄생하게 될까. 86년·88년에 대비한 여자수영의 유망주로 꼽히고있는 趙晟恩(12·신천국교6년) 祥恩(10·신천국교4년)자매가 제2의 崔允庭-允喜자매의 꿈을 안고 홍콩의 아시아태평양에이지그룹수영대회에 참가하기위해 26일 첫해외원정에 나선다.

이번대회에는 崔碩祐(13·언북중1년) 禎允(11·보문국교6년) 남매도 참가, 화제가 되고있다.

이들은 지난달28일 실시한 에이지그룹별 선발전서 1위를 차지한 유망주들.

允喜자매의 주종목이 배영인데반해 趙晟恩자매의 주종목은 평영으로 언니 晟恩은 1백m에, 祥恩은 50m에 참가하며 崔碩祐는 자유형 2백m, 禎允은 배영1백m에 각각 출전한다.

趙晟恩이 선발전서 세운 기록은 1분22초80으로 국가대표 權子禎의기록 1분22초30에 0.5초차로 육박, 趙晟恩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키가 조금작은게 흠(1m44)이지만『체력과 의지력이 뛰어나 대성이기대된다』고 姜謙一감독(신천국교교사)은 말한다.

금년초 갑작스럽게 간염을 앓아 두달간 훈련공백이 있었으나 약20일의 연습끝에 자신의 종전기록을 3초가까이 단축하는 무서운 저력을 보였다. 특히 평영에는 천부적인 재질이있어 손허리 다리동작이 이상적으로 조화되고있다.

『동생 祥恩이는 아직 어려서 자주 연습에 빠질려고 하지만 새벽부터 깨워 연습에 끌고 나가요』언니 晟恩이 允喜언니 못지않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하자 동생은『允喜언니도 동생인데 나중에 언니를 이기지 않았느냐 두고보자』며 웃는다.

姜감독은 晟恩이가 간염을 앓고 난후 쉽게 피로를 느껴 하드트레이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자매가 홍콩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은 무난할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崔碩祐도 몸의 유연성이 뛰어나 체력만 잘 다듬으면 국가대표로 성장할수있는 선수。3년전 잠실 YMCA에서 취미로 수영을 시작한후 姜감독에 발탁, 아침저녁 하루 4시간씩 고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崔碩祐는 현재 자유형 2백m를 2분26초대에 주파할 정도로 기록이 향상됐으며 동생 禎允은 배영이 주종목으로 기록이나 악착같은 성격에서 崔允喜와 비교되고 있다. 【兪奭根기자】

◇"우리는 男妹…" 국내수영사상 최초의 남매 국가대표선수를 꿈꾸고 있는 崔碩祐(右)·禎允남매。한국최고 기록에는 못미치고 있으나 무섭게 뻗어나가는 유망주。

◇아직은 어리지만… 『윤정·윤희 언니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래요』趙晟恩(右)·祥恩 자매는 홍콩 에이지그룹수영대회에 대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延世·高大공동선두 劉漢徹 아이스하키

延世大는 21일하오 동대문링크에서 열린 제3회 劉漢徹배쟁탈 전국아이스하키대회 대학부 이틀째경기에서 라이벌 高麗大와 5-5로 비겨 각각 1승1무를 기록, 공동선두에 나섰다.

◇제2일전적

연세대 5(2-1 3-2 0-2)5 고려대 (1승1무)(1승1무)

광운대 5(2-2 0-2 3-0)3 한양대 (1승1패)(2패)

李相鎬-아르게요 5월26일對決

프로복싱 국내주니어웰터급강호 李相鎬(21)가 오는5월26일 미국 아틀랜틱시티에서 강호 알렉시스·아르게요(31·니카라과)와 대결한다고 元振프로모션이 22일 발표했다.

李相鎬는 아르게요와의 경기를 발판으로 세계무대에 진출, 세계도전을 준비하게된다.

80년도 전국신인왕전 우수선수로 선발되었던 李는 26전전승21KO승을 기록, 현재 WBA 주니어웰터급3위에 올라 있다.

한편 아르게요는 세계페더급, 주니어라이트급, 라이트급등 3개체급 챔피언을 지낸 선수로 지난해11월 WBA 주니어 웰터급챔피언 아론·프라이어에 도전했다가 KO패당해 사상 첫 4체급 정복에 실패했다. 전적은 77승(62KO) 5패.

第14기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14局 第10譜 190～240 (각5시간·덤5집반)

白 (6段) 徐 能 旭 <1勝2敗>
黑 (7段) 盧 永 夏 <2勝2敗>

黑 착각이 敗因

【白9집半勝】이바둑은 좌하귀를 白208로 가일수(이수를 손빼면 누차 지적한대로 黑「A」에 껴붙여 패가난다)한데서 승부는 결정, 이뒤 20여수를 두고 계가한 결과 白이 9집반을 이기고있었다.

시드組잔류가 달린 중요한 바둑이었는데 徐6단은 용하게 고비를 넘긴셈이고 盧7단은 십중팔구 탈락할처지에 놓였다. 나머지1국을 이기더라도 작년도서열이 하위인관계로 4패를한 기사가 3명이상 나오지않는한 도리가 없는것이다.

그것은 그렇고, 우상귀에서 발생한 패싸움이 때이른 승부처였는데 고집스럽게 黑61로 이은수가 문제였다. 61은 108에 후퇴할 시기거니와 黑71과 99로는 패를 해소해야 되는것을 끝까지 버티다가 白114로 우상귀를 잃고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白98을 듣지않으면 우하 黑이 몰살당한다고 착각한것이 마지막 패인이었다. 98이후 白이 계속공격해도 우하귀는 패가 고작이니 99로는「B」에 따내어 승리를굳힐 찬스였던 것이다. 그후 黑은 줄곧 사력을 다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60…52。69…57。72…52。75…57。78…52。81…57。84…52。90…79이음。91…57。94…52。97…57。100…52。103…57。106…52。109…57。112…1。…52。256…173이음。226…219이음。【一凡】

땅끝에서 오다 <39>

金成一 作 / 宋龍 畵

迷惑의 시대 ⑧

도리어 준호쪽에서 묻고 싶은 말이었다. 당신은 누구인데 이밤중에 남의 아내가 혼자있는 집에와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따지고 보면 준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그도 밤중에 남의 아내가 혼자있는 집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래도 준호는 혹시 그사내의 등뒤에서

『어머, 오빠!』

하는 영실의 음성이 날아올 것만 같아서 자꾸만 안을 기웃거리고있었다. 사내는 두번째 질문을 던져왔다.

『누구를 찾아 오시었읍니까?』

(…나는 누구를 찾아 왔는가? 이 세원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틀림없이 문영실을 찾아온것이 아닌가?)

준호는 더이상 멍청하게 서 있을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다.

『저…이댁이 리진통상에 다니는 이세원부장댁이 틀림 없읍니까?』

『그렇습니다만』

『저……』

『……?』

『저, 실은 그 부인되시는 문 영실씨를 만나러 왔읍니다만…』

하다보니 어쩐지 좀 이야기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았다. 사내는 다시 한번 준호의 아래위를 쓸어 보더니

『잠깐 들어 오시죠』

했다. 마치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런데 영실은 무얼 하느라고 내다보지도 않고 있단 말인가. 그는 사양하지 않고 들어섰다。수트케이스를 현관 안에 들여놓고 구두를 벗었다。그리고 응접실 소파에는 또 한 사람의 사내가 걸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자…앉으시지요』

준호는 엉거주춤하며 소파에 걸터앉았다。문을열었던 사나이도 따라앉으며 여전히 준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이집주인인 이세원 부장이나 그부인 문영실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

갑자기 준호는 말문이 막혀버리는것을 느꼈다。사실대로 이야기해봤자 이 열한시가 다된 시간에 부인혼자있는집에 트렁크를 든채로 찾아왔다는것은 어딘가 어색한 일이 아닐수 없었던 것이다.

『어디、여행에서 돌아오시는 길입니까?』

『제게 그런것을 묻고 계시는 댁들은 그런데 누구십니까?』

『아、』

사내는 잊었다는듯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보였다。자세히는 보지못했지만 거기엔 경찰의 마크가 찍혀있는것 같았다。그제서야 준호는 이집에 뭔가 심상치않은 일이 일어난것을 짐작할수 있었다。눈치빠른 준호가 아직까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것은、그가 너무나 영실에대한 상념에 사로잡혀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땅끝에서 오다 <40>

金成一 作

迷惑의 시대 ④

『저…혹시、이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읍니까?』

준호는 그제서야 응접실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응접실은 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않은 편이었다。평소 문영실의 성격답지 않게 응접실의 장식이며 책을 꽂아놓은 모양이라든가 소파의 커버까지 뭔가 정돈되지 않은것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준호의 모습을 형사들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었다。어쩌다 그들과 시선이 마주친 준호는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당신은…이집에 무슨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온거요?』

형사의 말투가 조금씩 딱딱해져가고 있었다。

『네、그렇습니다。도대체 이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읍니까?』

『정말 모르고 있었소?』

형사의 눈이 싸늘하게 준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쭈어본는거 아닙니까?』

『당신의 신분과 여기 찾아온 목적부터 들어봅시다。우선 주민등록증 보여 주실까?』

『아……』

『?』

『제주민등록증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본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늘 형의 아파트에다 그것을 두고 왔던 것이다。

『주민등록증이 없단 말요?』

형사의 말투가 자꾸만 험악해지고 있었다。뭐가뭔지 알 수 없게된 준호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더듬거렸다。

『아、아닙니다。실은 저、저는 지금 일본 동경에서 온 길이 올시다。아시다시피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형사는 의외라는 듯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아까 문을열어주던 사내가 다시 다그쳤다。

『그러면 여권이라도 좀 봅시다』

『네』

그는 얼른 대답하고나서 주머니를 뒤졌다。여권은 거기 있지 않았다。

『아…』

『왜 그러시오?』

『실은』

이야기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끼며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이마에서는 진땀이 솟아나고 있었다。

『실은…전 모레 다시 리비아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회사의 여권담당 직원에게 여권을 맡겼읍니다』

『어느 회사를 말하는거요?』

『네、리진통상주식회사입니다』

리진통상까지만 말해도 되는 것을 그는 긴장하여 주식회사 까지 갖다 붙여서 대답하고 있었다。형사는 두 손으로 무릎을 치더니 벌떡 일어섰다.

張吉山 <1723>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83)

여환은 더는 뭐라고 전할 말도 없어져서 머뭇거리다가 말하였다.

『자거라…』

『주무셔요…』

여환은 다시 신랑 방으로 돌아왔고 환하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 정섭이 말하였다.

『왜 건너 오시우?』

여환이 대꾸없이 그의 곁에 누우니 정섭은 다시 말하였다.

『내가 오밤수에게서 들은 기로는 두사람이 가약을 맺기로 하였다는데 필우물루를 허시우』

여환은 돌아 누웠다가,

『불 끌까요?』

하고는 일어나서 관솔불을 훅 불었다。

새벽인가 멀리 정곡사에서 치는 범종 소리가 구구월의 골짜기 가운데로 날아가고 있었다。여환은 눈을 떴다。옷밖에서 미닫이를 여닫는 소리가 들렸고 원향의 발소리가 나더니 신당 방 앞에 와서 섰다。여환은 숨죽이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원향이가 작은목소리로 말하였다。

『스님 이리 나오셔요』

여환은 대답없이 밖으로 나섰다。

『기도 드리느냐?』

『예、신당에서 드리지만 오늘은 스님이 오셨으니 제가 모시고 갈 곳이 있읍니다』

원향이 앞서서 걷기 시작하는데 여환은 뒤를따라 나섰다。새벽 공기가 차갑게 코끝에 끼쳐왔다。그들은 사선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골짜기 위로 올랐다。

『어디로 가느냐?』

여환이 물으니 원향이 뒤돌아 기다려 주면서 답하였다。

『제가 수도하던곳엘 찾아갈까 해요』

『어디……정곡사 근처인가』

『아뇨。용연에 가는 거예요。저를 점지하신 성신이 서해용왕이고 저는 용녀가 아닌가요。몸두님은 단군이시고 구월산에 내리시지요。용의 몸을 받아 사람에 밝게 뜨는 해를 혼백으로 태어났다지요』

여환은 원향의 뒤를 따르기만 하였다。두 사람은 원래 산간에서 자라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정곡사로 들어가는 일주문 앞에 당도하였고 그 옆길로 빠져서 계속 올라갔다。용연비폭(龍淵飛瀑)이라하나 절벽 가녘으로는 얼음이 하얗게 얼어붙어 기둥처럼섰고 그 가운데 좁아진 물줄기가 마치 명주 수건처럼 휘날리는데 물 떨어지는 자리는 그대로요 못의 주위는 얼어 붙었다。여환이 두리번거리니 멀리 동이트고 있었으며 폭포가 마주보이는 벼랑 같은 바위에 두 사람은 서있었다。원향이 두 손 모으고 비나리를 하였고 여환은 나직하게 염불하였다。드디어 컴컴한 하늘이 부옇게 밝아왔다。그들이 각각 염불을 그쳤을제 원향이 말하였다。

『저를 데리러 오셨나요?』

『그래。내가 온다구 하지 않더냐』

『전생의 오누이가 아니라 부부 화합하는 것인가요?』

『지어미 지아비가 되어야지』

『아이를 낳게 되나요』

길 ◇韓景職◇

정성과 응답

헌금도 정성이 같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지금 우리는 각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는 각교회단위로 전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전만 해도 미국등 외국으로부터 선교헌금을 통한 혜택을 받는 처지였다。대구 동산병원 안에 고아를위한 병원이 세워졌는데 그때에 병원 나성에서 피얼스박사께서 들려준 말씀을 지금도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 미국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큰부자가 헌금을 많이해서 이렇게 지은줄 아십니까。그것은 아닙니다。내가 이병원을 지으려할때 꼭 필요하다고 라디오에 방송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내가 편지를 한통 받았읍니다。어떤부인이 돈50불을 편지속에 넣어 보내면서「나는 항상 병중에 사는 반신불수가된 사람인데 내가 라디오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든지 그 병원을 도와줄 마음이 간절하지만 다른돈이 없은즉、그 라디오를 팔은 50불을보냅니다」이런 정성어린 헌금이 모여서 이병원이 되었읍니다』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겠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 $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 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8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진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터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1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제(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정실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24세 미만 가게에서 일할분 구함.
유경험자 환영, 남녀 불문
전화 : 691-3666 Mr. 리

스토어 헬퍼구함.
풀타임 (주 40시간)
전화 : 741-1465. 밤10시이후 242-2630.

지렁이 잡으실 분
좋은 농장 준비돼있음.(다운타운)
전화 : 533-7759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새 장비를 갖춘 버라이어티상점(Soter)
메니져 구함.(월수입 3,000불 보장, 약간 보증금요)
전화 : 1-727-6665 (AURORA)

입주하셔서 아이들 봐주실분 구함.
전화 : 741-9443 Mr. 박
(7시이후 연락요망)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강찬영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실 리셉셔니스트구함.
영어, 국어를 잘 하시고 영문타이핑을 할수 있는 분.
전화 : 961-2417. Mrs. 최

가정에서 재봉일 하실분구함.
(오바록과 공업파워미싱소유자로서 유경험자)
상세한 문의는 전화 : 530-1046(오후6시이후)

무비가게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영어, 한국어 능통한분.
전화 : 494-7830 낮, 925-1331 밤

샌드위치 커피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유경험자 원함.
직접 내방바람. (오후 3시~5시30분까지) 금~토
55 University Ave. Mrs. 한. 전화 : 368-7662(B)

(1) 가정교사
(2) 미용실에서 일할 분(학생도 가능)
(3) 미용 기술자. 전화 : 532-7094(B)

일본요리사, 웨이트레스 급구.
Nam Kang Restaurant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입주하셔서 남자아여 둘(세살, 일곱살) 돌바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Victoria Pk×Eglington. E.
전화 : 752-1467(낮 12시이후)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여 권 분 실

정일원(Jung Il-Won)
1128644(여권 No.) 1948년 11월20일 방문여권
4월 15일 3PM Eglinton Laird지역분실. 전화: 421-1089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매 매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주매상: $7,000. 아스킹: $90.000
전화 : 497-9180(오후8시~10시)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가게달린 집건물을 매매, 혹은 리스코저함.
아스킹 19만불. 7만불 다운.
전화 : 266-7958.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가게 사실분 또는 매니저 구함.
해밀톤 지역서 성업중.
전화 : 1-560-6400 Mr. 정

Fruit Store(과일가게)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Sacrificed Price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보석및 선물가게 매매
비즈네스가 잘되는 시계및 보석취급으로 오래전에 세워진 가게임. 전화 : 531-4486(낮), 635-0511(저녁)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집과 가게건물을 함께 매매, 혹은 리스코저함.
아스킹 19만불. 7만불 다운.
전화 : 266-7958.

3개월 사용된 선반달린
20 ft. Vegetable Cooler 급매
전화 : 421-6880 Mr. 리

건물달린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Subway 옆.
자세한 문의는 537-5164 Mr. 박

일본식당 매매. 술 라이선스 있음.
장소 Laird Dr. 아스킹 $80,000. 주매상 $6,000
(B)421-6016. (R)421-2258(토·일 주말) Mr. 마즈다

매우 바쁜 신발수선가게 매매.
Asking $9만. 전화 : 826-4355.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배더스트 & 윌슨 지역 HOUSE 매매 (새한장로교회 근처)
Asking Price: $156,900 4 Bed Rm. 2층집
Rose Hersh Ltd. 전화: 633-7777 Mrs. Jacobaso

도너스가게 매매.
주매상 $3,600. 아스킹 $145,000(St. Clair & Midland)
전화 : 421-6964. John or Peter.

오픈한지 1주일된 Store 매매.
아스킹$19,500. 오샤와지역.
전화 : 1-623-4557.

Show Case 4ft & 6ft(기타 여러종류)
Magazine Rack 급매.
전화 : 757-8323. 759-6445 Divid

햄버거숍. 다운타운(568 Yonge St.) 주매상: $5,000
8개월만 남은 리스 인수받으실분
전화: (B)921-2941. (R)677-353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전화 : 844-1583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비데오 핀볼 아케이드 매매
짧은 시간, 좋은 수입, 욕빌지역
전화 : 842-6195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렌트-피커링 5에이커 땅(401로부터 3분). 3 Bed Rm.과 (20×50) 창고. 가내공업과 건축업자에 적합. 전화 : 292-3709 Mr. or Mrs.윤(6시 이후)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숀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
전화: 532-7094(B) 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